

직업별 고용지표 비교연구

김 유 선

목 차

제1장 머리말	1
제2장 직업별 고용실태 - 기초사항(취업자, 2010년 8월)	4
1. 전체	4
2. 인적 속성	6
가. 남녀	6
나. 혼인상태	7
다. 성별혼인	9
라. 가구주 관계	10
마. 학력	11
바. 연령	13
3. 일자리 속성	15
가. 산업	15
나. 종사자규모	16
다. 종사상 지위	18
제3장 직업별 고용지표 II - 고용조건(노동자, 2010년 8월)	20
1. 고용안정(근속년수)	20
가. 장기근속자 비율	20
나. 단기근속자 비율	21
다. 직장유지율	22
라. 평균 근속년수	22
마. 장기-단기 근속자 비율과 평균 근속년수	23
2. 비정규직	24
가. 비정규직	24
나. 세부 고용형태	24
3. 임금수준	26

가. 월평균임금	26
나. 시간당 임금	26
4.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27
가. 임금불평등	27
나. 직업별 분위별 임금격차	28
다. 저임금-고임금계층	30
라. 최저임금 미달자	31
5. 노동시간	33
가. 평균 노동시간	33
나. 단시간-장시간 노동	33
6. 사회보험 가입	35
7. 노동조건 적용	36
8. 노조가입	37
제4장 직업별 고용실태 변화(2005~10년 8월)	38
1. 전체	38
2. 일자리 속성	41
가. 산업	41
나. 종사자 규모	43
다. 종사상 지위	45
3. 고용조건	47
가. 고용안정(근속년수)	47
나. 저임금계층	47
다. 임금수준	50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52
마. 노동시간	54
바. 사회보험 가입	55
사. 노동조건 적용	56
아. 노조 가입	57
제5장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	59
1.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방식	59

2.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 결과	60
제6장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64
1.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64
2.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66
가. 관리자	66
나. 전문가	67
다. 사무직	68
라. 서비스직	69
마. 판매직	70
바. 농림어업숙련직	71
사. 기능직	72
아. 장치기계조작조립원	73
자. 단순노무직	74
제7장 맺는 말	75
참고문헌	77
<부록> 직업별 고용실태(2005년 8월)	79

표 목 차

<표 2-1> 직업별 남녀 구성(2010년 8월)	7
<표 2-2> 직업별 혼인상태(2010년 8월)	9
<표 2-3> 직업별 성별혼인(2010년 8월)	10
<표 2-4> 직업별 학력(2010년 8월)	12
<표 2-5> 직업별 연령(2010년 8월)	14
<표 2-6> 직업별 산업분포(2010년 8월)	16
<표 2-7> 직업별 종사자 규모(2010년 8월)	18
<표 2-8> 직업별 종사상 지위(2010년 8월)	19
<표 3-1> 직업별 근속년수 분포와 평균값(2010년 8월, 임금노동자) ·	23
<표 3-2>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2010년 8월, 임금노동자)	25
<표 3-3> 직업별 월평균 임금과 분위별 분포 (2010년 8월, 임금노동자)	28
<표 3-4> 직업별 시간당 임금과 분위별 분포 (2010년 8월, 임금노동자)	29
<표 3-5> 직업별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 (2010년 8월, 임금노동자)	32
<표 3-6> 직업별 근로시간 평균값과 분포 (2010년 8월, 임금노동자)	34
<표 3-7> 직업별 사회보험 가입률(2010년 8월)	35
<표 3-8> 직업별 노동조건 적용실태(2010년 8월, 임금노동자)	36
<표 3-9> 직업별 노조유무와 가입현황(2010년 8월, 임금노동자)	37
<표 4-1> 직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2005-10년 8월)	40
<표 4-2> 직업별 산업분포 증감(2005-10년 8월)	42
<표 4-3> 직업별 종사상 규모 증감(2005-10년 8월)	44
<표 4-4>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증감 현황(2005-10년 8월)	45

<표 4-5> 직업별 장단기 근속비율과 근속년수 평균값 증감 현황 (2005-10년 8월)	47
<표 4-6> 직업별 비정규직 증감 현황(2005-10년 8월)	49
<표 4-7> 직업별 월평균 임금 증감 현황(2005-10년 8월)	50
<표 4-8> 직업별 시간당 임금 증감 현황(2005-10년 8월)	51
<표 4-9> 직업별 임금불평등 증감 현황(2005-10년 8월, p9010)	52
<표 4-10> 직업별 저임금계층 증감 현황(2005-10년 8월)	53
<표 4-11> 직업별 노동시간 증감 현황(2005-10년 8월)	54
<표 4-12> 직업별 사회보험 가입률 증감 현황(2005-10년 8월)	55
<표 4-13> 직업별 노동조건 적용률 증감 현황(2005-10년 8월)	56
<표 4-14> 직업별 노조유무와 노조가입 증감 현황(2005-10년 8월) ...	58
<표 4-15> 직업별 노조유무와 노조가입 증감 현황(2005-10년 8월) ...	58
<표 5-1> 항목별 지표와 가중치	59
<표 5-2>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2005년 8월)	61
<표 5-3>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2010년 8월)	61
<표 5-4>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표준화 결과 (2005년 8월)	62
<표 5-5>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표준화 결과 (2010년 8월)	62
<표 5-6>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순위(2005년 8월)	63
<표 5-7>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순위(2010년 8월)	63
<표 6-1> 고용의 양과 질 회귀분석 결과(2010년 8월)	65
<표 7-1> 고용의 질 지표(종합) 연도별 추이	76
<부표 1> 직업별 남녀 분포(2005년 8월)	79
<부표 2> 직업별 혼인상태(2005년 8월)	80
<부표 3> 직업별 성별혼인(2005년 8월)	81
<부표 4> 직업별 가구주관계(2005년 8월)	82
<부표 5> 직업별 학력(2005년 8월)	83

<부표 6> 직업별 연령분포(2005년 8월)	84
<부표 7> 직업별 산업분포(2005년 8월)	85
<부표 8> 직업별 종사자규모(2005년 8월)	86
<부표 9>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05년 8월)	87
<부표 10> 직업별 근속년수 분포와 평균값 (2005년 8월, 임금노동자)	88
<부표 11>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2005년 8월, 임금노동자)	89
<부표 12> 직업별 월평균 임금과 분위별 분포 (2005년 8월, 임금노동자)	90
<부표 13> 직업별 시간당 임금과 분위별 분포 (2005년 8월, 임금노동자)	90
<부표 14> 직업별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 (2005년 8월, 임금노동자)	91
<부표 15> 직업별 근로시간 평균값과 분포 (2005년 8월, 임금노동자)	92
<부표 16> 직업별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2005년 8월) ·	92
<부표 17> 직업별 노조유무와 가입현황(2005년 8월, 임금노동자) ···	93

그림 목차

<그림 2-1> 직업별 취업자와 노동자 수(2010년 8월)	5
<그림 2-2> 직업별 취업자와 노동자 비중(2010년 8월)	5
<그림 2-3> 직업별 남성 비율	6
<그림 2-4> 직업별 평균 교육년수(2010년 8월)	12
<그림 2-5> 직업별 평균 연령(2010년 8월)	13
<그림 2-6> 직업별 사업체 규모별 분포(취업자)	17
<그림 2-7> 직업별 사업체 규모별 분포(노동자)	17
<그림 3-1> 장기근속자(10년 이상) 비율	21
<그림 3-2> 단기근속자(1년 미만) 비율	21
<그림 3-3> 직장유지율	22
<그림 3-4> 근속년수	23
<그림 3-5> 비정규직	24
<그림 3-6> 월평균임금(만원)	26
<그림 3-7> 시간당 임금(원)	27
<그림 3-8> 직업별 임금불평등(P9010)	27
<그림 3-9> 직업별 분위별 월임금불평등(10-50-90분위)	28
<그림 3-10> 직업별 분위별 시간당 임금(10-50-90분위)	29
<그림 3-11> 저임금-고임금계층 비율(월평균임금 기준)	30
<그림 3-12> 저임금-고임금계층 비율(시간당 임금 기준)	31
<그림 3-13> 주당 노동시간	33
<그림 3-14> 장시간 노동 비율	34
<그림 3-15> 직업별 사회보험 직장 가입률	35
<그림 3-16> 직업별 주5일제와 퇴직금 적용률	36
<그림 4-1> 직업별 취업자 증감(2005-10년 8월)	38
<그림 4-2> 산업별 취업자 분포(2005-10년 8월)	41

<그림 4-3> 종사상 규모별 취업자 분포(2005-10년 8월)	43
<그림 4-4> 종사상 규모별 취업자 분포(2005-10년 8월)	44
<그림 4-5> 직업별 임금노동자 비중(2005-10년)	45
<그림 4-6> 연도별 직업별 월임금 수준(2005-10년)	50
<그림 4-7> 연도별 직업별 시간당임금(2005-10년)	51
<그림 6-1> 고용의 양과 질(2005년, 2010년)	64
<그림 6-2> 고용의 질 지표와 고용의 양 지표 회귀분석 결과	65
<그림 6-3>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관리자	66
<그림 6-4>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전문자	67
<그림 6-5>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사무직	68
<그림 6-6>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서비스직	69
<그림 6-7>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판매직	70
<그림 6-8>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농업어업숙련직	71
<그림 6-9>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기능직	72
<그림 6-10>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장치기계조작조립원	73
<그림 6-11>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단순노무직	74

직업별 고용지표 비교연구

김 유 선

제 1 장

머리말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제87차 ILO 총회에 제출한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general director: decent work」에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자유롭고 평등하고 안정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조건을 가진 생산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남녀 모두를 위한 기회”로 정의하고 있다. 당시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ILO의 관심사는 양질의 일자리다. 그 목표는 일자리 창출 자체가 아니라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의 양은 고용의 질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국내에서도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늘면서 고용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양산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로부터 앞날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 간다. 결혼과 자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들고, 이혼과 자살을 늘려 수많은 가정을 파괴한다. 경제적으로는 내수기반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지지기반을 잠식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경제적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고용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도 점차 늘고 있다. 국내 연구만 보더라도 어수봉·조세형(2006), 노용환·신종각(2007), 방하남·이영면·김기현·김한준·이상호(2007), 이영면·박상언(2007), 홍성우

(2008), 이병훈(2009), 박상현(2010), 김유선(2010) 등 고용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 비교분석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김유선(2010)은 ILO, UNDP 등의 표준화 방법을 사용해서 OECD 30개국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개발하고 비교분석했다. 여기서는 김유선(2010)과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비교분석한다. 제2장과 제3장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8월) 원 자료를 사용해서 2010년 8월 현재 직업별 고용실태를 비교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년과 2010년 8월) 원 자료를 사용하되, 6차 개정 신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지난 5년 동안 직업별 고용실태의 변화(2005-10년)를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방식과 결과를 소개하고, 제6장에서는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비교분석한다.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서 함의를 살펴본다.

끝으로 선행 연구인 김유선(2010)에서 OECD 회원국 고용의 양과 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고용의 양은 22위, 고용의 질은 30위,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한 고용지표는 29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은 앵글로색슨이나 남부유럽은 물론 동유럽 체제전환국에도 못 미치며, 멕시코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유연안정성(Flexicurity) 문헌은 ‘노르딕 > 앵글로색슨 > 유럽대륙 > 남부유럽’ 순으로 유연안정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고용의 양과 질 지표는 ‘노르딕 > 유럽대륙 > 앵글로색슨 > 남부유럽’ 순으로, 유럽대륙이 앵글로색슨보다 뒤떨어진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노르딕과 유럽대륙 국가는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양호하며, 앵글로색슨 국가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낮다. 일본은 앵글로색슨 유형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OECD 회원국은 대부분 고용의 양과 질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고용의 양과 질이 괴리된 이상치(outlier)다. 고용의 양은 국민소득(1인당 GDP)과 (불평등을 고려한) 실제 인간개발 수준에 근접하지만, 고용의 질은 국민소득과 실제 인간개발 수준에 크

게 못 미친다. 한국 노동자들은 경제성장과 인적자원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질 나쁜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다.

넷째, 한국 노동자들의 직장만족도는 OECD 30개국 중 30위다.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고용의 질은 계수 값이 0.899***로 0.1% 유의수준에서 직장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고용의 질 지표가 노동자들 직장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OECD 30위인 직장만족도는 OECD 30위인 고용의 질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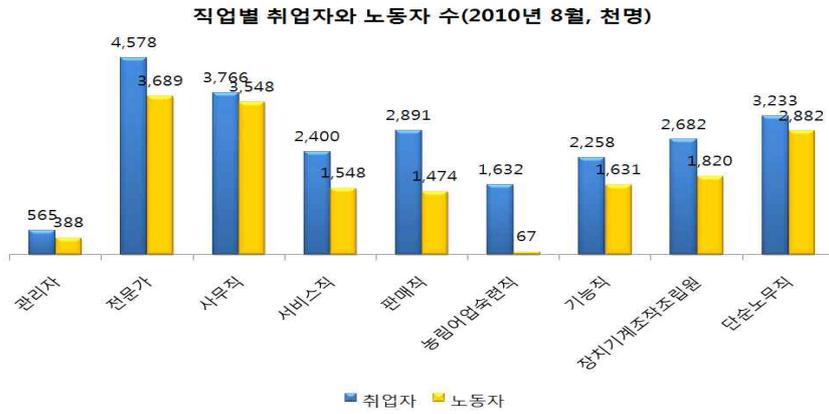
제 2 장
직업별 고용실태 I
기조사양(취업자, 2010년 8월)

1.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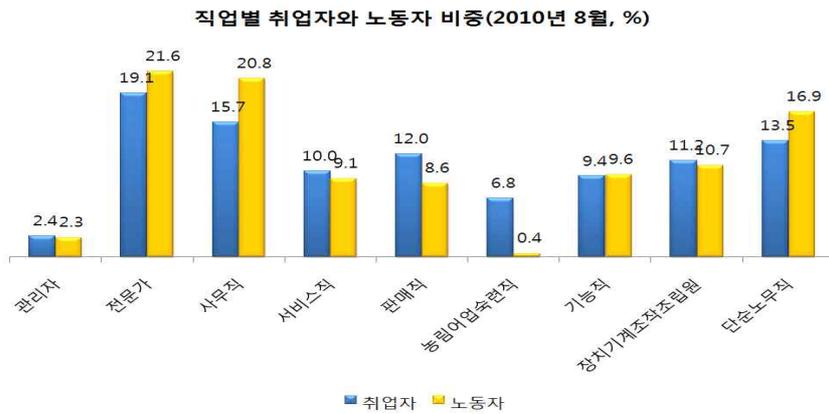
통계청이 2010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취업자는 2,401만 명이고 노동자는 1,705만 명이다. 직업별로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가가 458만 명(19.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무직 377만 명(15.7%), 단순노무직 323만 명(13.5%), 판매직 289만 명(12.0%), 장치기계조작조립원 268만 명(11.2%), 서비스직 240만 명(10.0%), 기능직 226만 명(9.4%), 농림어업숙련직 163만 명(6.8%), 관리자 57만 명(2.4%) 순이다.

직업별로 노동자는 전문가가 369만 명(21.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무직 355만 명(20.8%), 단순노무직 288만 명(16.9%),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82만 명(10.7%), 기능직 163만 명(9.6%), 서비스직 155만 명(9.1%), 판매직 147만 명(8.6%), 관리자 39만 명(2.3%), 농림어업숙련직 7만 명(0.4%) 순이다.

<그림 2-1> 직업별 취업자와 노동자 수(2010년 8월)



<그림 2-2> 직업별 취업자와 노동자 비중(201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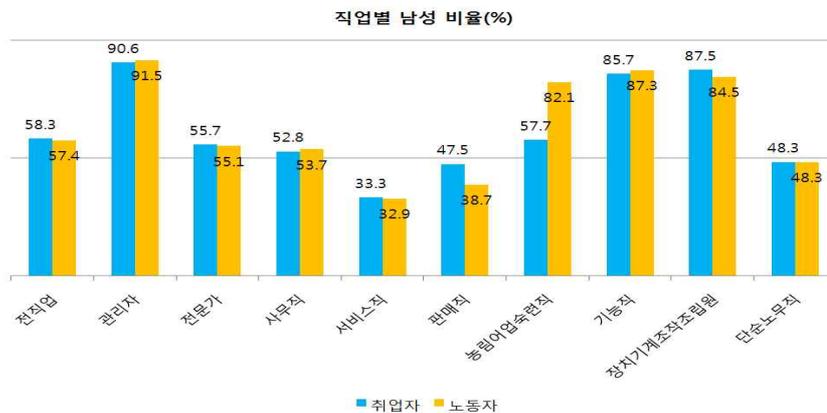
2. 인적 속성

가. 남녀

2010년 8월 취업자 2,401만 명 가운데 남자는 1,401만 명(58.3%)이고 여자는 1,000만 명(41.7%)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401만 명(16.6%p) 많다. 직업별로 남자 비율은, ‘관리자(90.6%) > 장치기계조작조립원(87.5%) > 기능직(85.7%) > 농림어업숙련직(57.7%) > 전문가(55.7%) > 사무직(52.8%) > 단순노무직(48.3%) > 판매직(47.5%) > 서비스직(33.3%)’ 순으로, 관리자와 장치기계조작조립원, 기능직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서비스직은 여자가 많다.

분석대상을 노동자로 한정하면 노동자 1,705만 명 가운데 남자는 978만 명(57.4%) 여자는 727만 명(42.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51만 명(14.8%p) 많다. 직업별로 남자 비율은 ‘관리자(91.5%) > 기능직(87.3%) > 장치기계조작조립원(84.5%) > 농림어업숙련직(82.1%) > 전문가(55.1%) > 사무직(53.7%) > 단순노무직(48.3%) > 판매직(38.7%) > 서비스직(32.9%)’ 순으로, 관리자와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원, 농림어업숙련직은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서비스직과 판매직은 여자가 많다.

〈그림 2-3〉 직업별 남성 비율



〈표 2-1〉 직업별 남녀 구성(2010년 8월)

		수(천명)			비율(%)			분포(%)		
		남 자	여자	남녀	남 자	여 자	격 차	남 자	여 자	남 녀
취 업 자	전직업	14,005	10,000	24,005	58.3	41.7	16.7	100	100	100
	관리자	512	53	565	90.6	9.4	81.2	3.7	0.5	2.4
	전문가	2,548	2,030	4,578	55.7	44.3	11.3	18.2	20.3	19.1
	사무직	1,989	1,777	3,766	52.8	47.2	5.6	14.2	17.8	15.7
	서비스직	800	1,600	2,400	33.3	66.7	-33.3	5.7	16.0	10.0
	판매직	1,372	1,519	2,891	47.5	52.5	-5.1	9.8	15.2	12.0
	농림어업 숙련직	941	691	1,632	57.7	42.3	15.3	6.7	6.9	6.8
	기능직	1,936	322	2,258	85.7	14.3	71.5	13.8	3.2	9.4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346	336	2,682	87.5	12.5	74.9	16.8	3.4	11.2
	단순노무직	1,561	1,672	3,233	48.3	51.7	-3.4	11.1	16.7	13.5
노 동 자	전직업	9,782	7,265	17,047	57.4	42.6	14.8	100	100	100
	관리자	355	33	388	91.5	8.5	83.0	3.6	0.5	2.3
	전문가	2,033	1,656	3,689	55.1	44.9	10.2	20.8	22.8	21.6
	사무직	1,907	1,641	3,548	53.7	46.3	7.5	19.5	22.6	20.8
	서비스직	509	1,039	1,548	32.9	67.1	-34.2	5.2	14.3	9.1
	판매직	570	904	1,474	38.7	61.3	-22.7	5.8	12.4	8.6
	농림어업 숙련직	55	12	67	82.1	17.9	64.2	0.6	0.2	0.4
	기능직	1,424	207	1,631	87.3	12.7	74.6	14.6	2.8	9.6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537	283	1,820	84.5	15.5	68.9	15.7	3.9	10.7
	단순노무직	1,392	1,490	2,882	48.3	51.7	-3.4	14.2	20.5	16.9

나. 혼인상태

2010년 8월 현재 취업자 2,401만 명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1,692만 명(70.5%)이고 미혼자는 531만 명(22.1%)이다. 결혼 후 사별한 사람은 94만 명(3.9%)이고 이혼한 사람은 84만 명(3.5%)이다. 직업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관리자(91.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농림어업 숙련직(84.0%), 장치기계조작조립원(77.1%), 기능직(76.9%), 판매직(71.9%), 단순노무직(68.4%), 사무직(65.1%), 서비스직(64.5%), 전문가

(64.1%) 순이며, 전문가(33.2%)와 사무직(32.8%)은 3명 중 1명꼴로 미혼자다. 사무관리전문직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이 2%대인데, 판매직(7.7%)과 기능직(6.4%), 장치기계조작조립원(6.1%)은 6~7%대이고, 서비스직(12.7%)과 농림어업숙련직(12.1%)은 12%대이며, 단순노무직(16.5%)은 16%대로 매우 높다.

분석대상을 노동자로 한정하면 노동자 1,705만 명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1,110만 명(65.1%)이고 미혼자는 475만 명(27.8%)이다. 결혼 후 사별한 사람은 59만 명(3.4%)이고 이혼한 사람은 62만 명(3.6%)이다. 직업별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관리자(91.8%)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농림어업숙련직(81.8%), 기능직(71.9%), 장치기계조작조립원(71.4%), 단순노무직(66.6%), 사무직(63.4%), 전문가(61.7%), 판매직(60.3%), 서비스직(56.8%) 순이며, 전문가(36.0%)와 사무직(34.5%), 판매직(32.7%), 서비스직(30.7%)은 3명 중 1명꼴로 미혼자다. 사무관리전문직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이 2%대인데, 판매직(7.1%)과 기능직(7.1%), 장치기계조작조립원(6.4%)은 6~7%대이고, 서비스직(12.5%)과 단순노무직(17.6%)이 가장 높다.

〈표 2-2〉 직업별 혼인상태(2010년 8월)

		수(천명)				비율(%)			
		미혼	유배 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 우	사별	이혼
취 업 자	전직업	5,307	16,918	944	837	22.1	70.5	3.9	3.5
	관리자	32	520	4	10	5.7	91.9	0.7	1.8
	전문가	1,517	2,931	43	85	33.2	64.1	0.9	1.9
	사무직	1,235	2,453	22	57	32.8	65.1	0.6	1.5
	서비스직	548	1,548	138	167	22.8	64.5	5.7	7.0
	판매직	591	2,081	103	118	20.4	71.9	3.6	4.1
	농림어업 숙련직	65	1,370	177	19	4.0	84.0	10.9	1.2
	기능직	378	1,736	47	97	16.7	76.9	2.1	4.3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451	2,068	39	123	16.8	77.1	1.5	4.6
	단순노무직	490	2,211	371	161	15.2	68.4	11.5	5.0
노 동 자	전직업	4,745	11,099	585	620	27.8	65.1	3.4	3.6
	관리자	24	357	2	6	6.2	91.8	0.5	1.5
	전문가	1,329	2,276	29	55	36.0	61.7	0.8	1.5
	사무직	1,224	2,251	17	56	34.5	63.4	0.5	1.6
	서비스직	475	880	85	108	30.7	56.8	5.5	7.0
	판매직	482	889	32	72	32.7	60.3	2.2	4.9
	농림어업 숙련직	9	54	3	-	13.6	81.8	4.5	-
	기능직	342	1,173	34	82	21.0	71.9	2.1	5.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403	1,300	28	89	22.1	71.4	1.5	4.9
	단순노무직	457	1,919	355	152	15.9	66.6	12.3	5.3

다. 성별혼인

2010년 8월 현재 취업자 2,401만 명 가운데 기혼남자가 1,107만 명(46.1%)이고, 다음으로는 기혼여자 763만 명(31.8%), 미혼남자 294만 명(12.2%), 미혼여자 237만 명(9.9%) 순이다. 관리자(86.7%)와 장치기계조작조립원(72.4%), 기능직(70.0%)은 기혼남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서비스직(55.7%)과 단순노무직(49.9%), 판매직(42.2%)은 기혼여자가 많다.

이런 특징은 분석대상을 노동자로 한정해도 마찬가지다. 노동자 1,705만 명 가운데 기혼남자가 721만 명(42.3%)이고, 다음으로는 기혼여

자 509만 명(29.9%), 미혼남자 257만 명(15.1%), 미혼여자 217만 명(12.7%) 순이다. 관리자(88.1%)와 농림어업숙련직(68.7%), 기능직(67.6%), 장치기계조작조립원(64.8%)은 기혼남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서비스직(52.1%)과 단순노무직(49.7%), 판매직(43.6%)은 기혼여자가 많다.

〈표 2-3〉 직업별 성별혼인(2010년 8월)

		수(천명)				비율(%)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취 업 자	전직업	2,939	11,065	2,368	7,631	12.2	46.1	9.9	31.8
	관리자	21	491	11	43	3.7	86.7	1.9	7.6
	전문가	636	1,911	881	1,149	13.9	41.8	19.2	25.1
	사무직	457	1,532	778	999	12.1	40.7	20.7	26.5
	서비스직	284	516	264	1,336	11.8	21.5	11.0	55.7
	판매직	292	1,080	298	1,220	10.1	37.4	10.3	42.2
	농림어업 숙련직	60	881	5	686	3.7	54.0	0.3	42.0
	기능직	355	1,581	24	298	15.7	70.0	1.1	13.2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404	1,942	47	288	15.1	72.4	1.8	10.7
	단순노무직	430	1,131	60	1,612	13.3	35.0	1.9	49.9
노 동 자	전직업	2,572	7,212	2,172	5,094	15.1	42.3	12.7	29.9
	관리자	14	341	9	23	3.6	88.1	2.3	5.9
	전문가	558	1,475	771	886	15.1	40.0	20.9	24.0
	사무직	452	1,456	773	869	12.7	41.0	21.8	24.5
	서비스직	242	267	232	807	15.6	17.2	15.0	52.1
	판매직	220	350	262	642	14.9	23.7	17.8	43.6
	농림어업 숙련직	9	46	-	12	13.4	68.7	-	17.9
	기능직	321	1,103	21	186	19.7	67.6	1.3	11.4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357	1,180	46	237	19.6	64.8	2.5	13.0
	단순노무직	399	994	58	1,432	13.8	34.5	2.0	49.7

라. 가구주 관계

2010년 8월 현재 취업자 2,401만 명 가운데 가구주가 1,396만 명(58.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우자 542만 명(22.6%), 기타 가구원 463만 명(19.3%) 순이다. 관리자(91.2%)와 장치기계조작조립원(78.0%),

기능직(77.5%)은 가구주가 압도적으로 많고, 단순노무직(53.4%)과 전문가(53.0%), 판매직(51.1%), 사무직(50.0%), 서비스직(44.2%)은 가구주가 절반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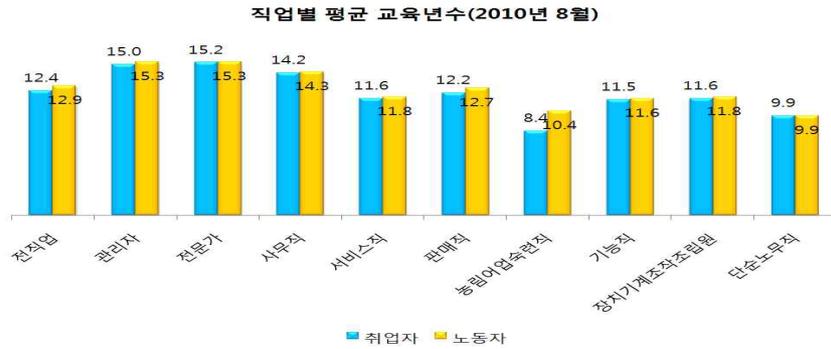
분석대상을 노동자로 한정하면 노동자 1,705만 명 가운데 가구주가 946만 명(55.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기타 가구원 407만 명(23.8%), 배우자 352만 명(20.6%) 순이다. 관리자(91.2%)와 농림어업숙련직(77.3%), 기능직(75.8%), 장치기계조작조립원(72.6%)은 가구주가 압도적으로 많고, 단순노무직(54.5%)과 전문가(51.6%), 사무직(50.8%)은 가구주가 절반 정도이며, 서비스직(40.8%)과 판매직(40.1%)은 10명 중 4명꼴로 가구주다.

마. 학력

2010년 8월 현재 취업자 2,401만 명 가운데 고졸이 881만 명(36.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대졸이상 638만 명(26.6%), 중졸이하 503만 명(21.0%), 전문대졸 291만 명(12.1%), 재학 또는 휴학중 88만 명(3.7%) 순이다. 관리자(65.7%)와 전문가(65.1%)는 3명 중 2명꼴로 대졸이상이고, 사무직(65.4%)은 3명 중 2명꼴로 전문대졸 이상이다. 이에 비해 농림어업숙련직(73.0%)은 중졸이하가 압도적이고, 단순노무직(48.5%)은 절반이 중졸이하다. 직업별로 평균 교육년수를 살펴보면 전문가(15.2년)와 관리자(15.0년)가 가장 길고, 단순노무직(9.9년)과 농림어업숙련직(8.4년)이 가장 짧다.

분석대상을 노동자로 한정하면 노동자 1,705만 명 가운데 고졸이 607만 명(35.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대졸이상 513만 명(30.1%), 중졸이하 264만 명(15.5%), 전문대졸 244만 명(14.3%), 재학 또는 휴학중 77만 명(4.5%) 순이다. 관리자(71.4%)와 전문가(66.3%)는 3명 중 2명꼴로 대졸이상이고, 사무직(66.9%)은 3명 중 2명꼴로 전문대졸 이상이다. 이에 비해 단순노무직(49.3%)과 농림어업숙련직(44.1%)은 절반이 중졸이하다. 직업별로 평균 교육년수를 살펴보면 관리자(15.3년)와 전문가(15.3년)가 가장 길고, 단순노무직(9.9년)이 가장 짧다.

〈그림 2-4〉 직업별 평균 교육년수(2010년 8월)



〈표 2-4〉 직업별 학력(201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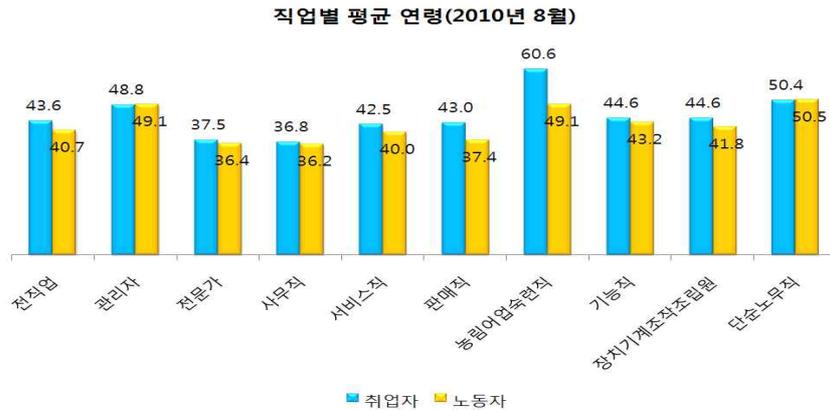
	직업	수(천명)					비율(%)					교육 년수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재학 휴학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재학 휴학	
취 업 자	전직업	5,033	8,806	2,907	6,380	881	21.0	36.7	12.1	26.6	3.7	12.4
	관리자	10	129	55	371	-	1.8	22.8	9.7	65.7	-	15.0
	전문가	39	541	809	2,981	208	0.9	11.8	17.7	65.1	4.5	15.2
	사무직	61	1,109	757	1,707	133	1.6	29.4	20.1	45.3	3.5	14.2
	서비스직	570	1,149	249	251	181	23.8	47.9	10.4	10.5	7.5	11.6
	판매직	459	1,473	334	486	140	15.9	50.9	11.5	16.8	4.8	12.2
	농림어업 숙련직	1,191	324	37	66	14	73.0	19.9	2.3	4.0	0.9	8.4
	기능직	581	1,174	285	188	30	25.7	52.0	12.6	8.3	1.3	11.5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553	1,648	244	186	51	20.6	61.4	9.1	6.9	1.9	11.6
	단순노무직	1,569	1,259	137	144	124	48.5	38.9	4.2	4.5	3.8	9.9
노 동 자	전직업	2,641	6,067	2,442	5,131	767	15.5	35.6	14.3	30.1	4.5	12.9
	관리자	2	72	37	277	-	0.5	18.6	9.5	71.4	-	15.3
	전문가	23	370	705	2,445	146	0.6	10.0	19.1	66.3	4.0	15.3
	사무직	39	1,007	733	1,639	131	1.1	28.4	20.7	46.2	3.7	14.3
	서비스직	323	698	182	171	173	20.9	45.1	11.8	11.1	11.2	11.8
	판매직	102	796	227	226	123	6.9	54.0	15.4	15.3	8.3	12.7
	농림어업 숙련직	30	20	9	6	3	44.1	29.4	13.2	8.8	4.4	10.4
	기능직	406	844	226	129	26	24.9	51.7	13.9	7.9	1.6	11.6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96	1,150	205	122	46	16.3	63.2	11.3	6.7	2.5	11.8
	단순노무직	1,420	1,110	118	116	119	49.3	38.5	4.1	4.0	4.1	9.9

바. 연령

2010년 8월 현재 취업자 2,401만 명의 평균 연령은 43.6세다. 직업별 평균 연령은 농림어업숙련직(60.6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50.4세)과 관리자(48.8세)가 많다. 기능직(44.6세)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44.6세), 판매직(43.0세)과 서비스직(42.5세)은 40대가 평균 연령이고, 전문가(37.5세)와 사무직(36.8세)은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이다.

분석대상을 노동자로 한정하면 노동자 1,705만 명의 평균 연령은 40.7세다. 직업별 평균 연령은 단순노무직(50.5세)과 농림어업숙련직(49.1세), 관리자(49.1세)가 가장 많다. 기능직(43.2세)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41.8세), 서비스직(40.0세)은 40대 초반이 평균 연령이고, 판매직(37.4세)과 전문가(36.4세)와 사무직(36.2세)은 30대 후반이 평균 연령이다.

〈그림 2-5〉 직업별 평균 연령(2010년 8월)



〈표 2-5〉 직업별 연령(2010년 8월)

		수(천명)					비율(%)					평균 연령
		25 미만	25- 34세	35- 44세	45- 54세	55세 이 상	25세 미 만	25- 34세	35- 44세	45- 54세	55세 이상	
취 업 자	전직업	1,392	5,220	6,387	6,193	4,813	5.8	21.7	26.6	25.8	20.0	43.6
	관리자	1	22	151	254	137	0.2	3.9	26.7	45.0	24.2	48.8
	전문가	345	1,644	1,523	789	276	7.5	35.9	33.3	17.2	6.0	37.5
	사무직	279	1,460	1,194	667	167	7.4	38.8	31.7	17.7	4.4	36.8
	서비스직	253	394	590	786	378	10.5	16.4	24.6	32.7	15.7	42.5
	판매직	217	510	876	786	502	7.5	17.6	30.3	27.2	17.4	43.0
	농림어업 숙련	14	45	107	315	1,151	0.9	2.8	6.6	19.3	70.5	60.6
	기능직	31	381	683	791	371	1.4	16.9	30.3	35.0	16.4	44.6
	장치기계 조작	91	451	726	919	495	3.4	16.8	27.1	34.3	18.5	44.6
	단순노무직	161	313	537	886	1,336	5.0	9.7	16.6	27.4	41.3	50.4
노 동 자	전직업	1,279	4,683	4,786	3,966	2,331	7.5	27.5	28.1	23.3	13.7	40.7
	관리자	1	17	94	175	101	0.3	4.4	24.2	45.1	26.0	49.1
	전문가	290	1,492	1,179	553	176	7.9	40.4	32.0	15.0	4.8	36.4
	사무직	277	1,440	1,120	584	128	7.8	40.6	31.6	16.5	3.6	36.2
	서비스직	238	301	374	454	180	15.4	19.5	24.2	29.3	11.6	40.0
	판매직	201	390	496	303	84	13.6	26.5	33.6	20.6	5.7	37.4
	농림어업 숙련	2	10	10	18	26	3.0	15.2	15.2	27.3	39.4	49.1
	기능직	29	340	492	551	218	1.8	20.9	30.2	33.8	13.4	43.2
	장치기계 조작	86	406	555	562	210	4.7	22.3	30.5	30.9	11.5	41.8
	단순노무직	155	287	466	766	1,208	5.4	10.0	16.2	26.6	41.9	50.5

3. 일자리 속성

가. 산업

2010년 8월 현재 취업자 2,401만 명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유통서비스업이 548만 명(22.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제조업 406만 명(16.9%), 사회서비스업 394만 명(16.4%), 농림어업, 건설업 등 기타 재화생산 371만 명(15.5%), 개인서비스업 357만 명(14.9%), 생산자서비스업 325만 명(13.5%) 순이다. 관리자와 사무직, 단순노무직은 각 산업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비해, 전문가는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업(47.7%), 서비스직은 개인서비스업(74.5%), 판매직은 유통서비스업(79.1%), 농림어업숙련직은 농림어업(99.1%), 기능직은 제조업(33.6%)과 건설업(36.5%),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은 제조업(49.2%)에 다수가 몰려 있다.

분석대상을 노동자로 한정하면 사회서비스업 351만 명(20.6%), 제조업 348만 명(20.4%), 유통서비스업 331만 명(19.4%), 생산자서비스업 286만 명(16.8%), 개인서비스업 216만 명(12.7%), 기타 재화생산 172만 명(10.1%) 순이다. 관리자와 사무직, 단순노무직은 각 산업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 비해, 전문가는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업(48.6%), 서비스직은 개인서비스업(61.0%), 판매직은 유통서비스업(69.6%), 농림어업숙련직은 농림어업(80.6%), 기능직은 제조업(33.3%)과 건설업(37.0%),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은 제조업(62.5%)에 다수가 몰려 있다.

〈표 2-6〉 직업별 산업분포(201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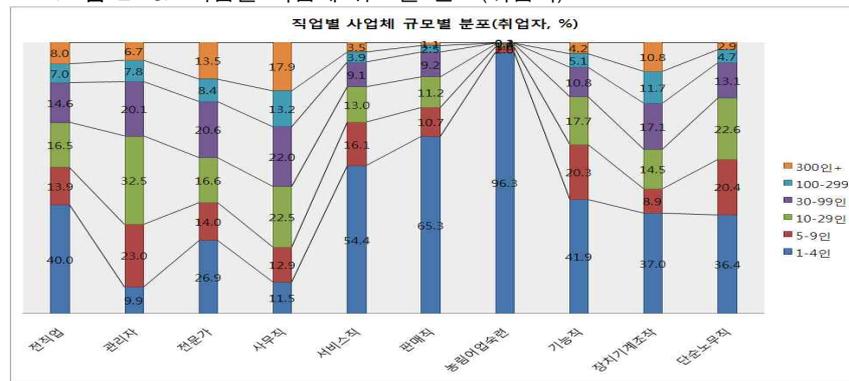
		수(천명)						비율(%)					
		제조업	기타재화생산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제조업	기타재화생산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취업자	전직업	4,058	3,710	3,245	5,478	3,571	3,944	16.9	15.5	13.5	22.8	14.9	16.4
	관리자	115	109	130	107	49	58	20.2	19.2	22.9	18.8	8.6	10.2
	전문가	440	208	830	650	266	2,185	9.6	4.5	18.1	14.2	5.8	47.7
	사무직	756	272	943	800	200	794	20.1	7.2	25.0	21.2	5.3	21.1
	서비스직	15	3	101	35	1,788	458	0.6	0.1	4.2	1.5	74.5	19.1
	판매직	91	25	333	2,285	146	10	3.1	0.9	11.5	79.1	5.1	0.3
	농림어업 숙련	1	1,618	9		4	1	0.1	99.1	0.6		0.2	0.1
	기능직	759	823	131	157	362	24	33.6	36.5	5.8	7.0	16.0	1.1
	장치기계 조작	1,319	207	116	902	85	53	49.2	7.7	4.3	33.6	3.2	2.0
	단순노무직	562	445	652	542	671	361	17.4	13.8	20.2	16.8	20.8	11.2
노동자	전직업	3,481	1,718	2,863	3,309	2,160	3,514	20.4	10.1	16.8	19.4	12.7	20.6
	관리자	68	78	111	62	23	45	17.6	20.2	28.7	16.0	5.9	11.6
	전문가	409	190	584	509	206	1,792	11.1	5.1	15.8	13.8	5.6	48.6
	사무직	714	249	903	725	174	784	20.1	7.0	25.4	20.4	4.9	22.1
	서비스직	15	3	95	33	944	458	1.0	0.2	6.1	2.1	61.0	29.6
	판매직	64	12	292	1,025	71	9	4.3	0.8	19.8	69.6	4.8	0.6
	농림어업 숙련	1	54	7		4	1	1.5	80.6	10.4		6.0	1.5
	기능직	542	603	123	132	205	24	33.3	37.0	7.6	8.1	12.6	1.5
	장치기계 조작	1,137	105	110	385	42	41	62.5	5.8	6.0	21.2	2.3	2.3
	단순노무직	531	424	638	438	491	360	18.4	14.7	22.1	15.2	17.0	12.5

나. 종사자규모

2010년 8월 현재 취업자 2,401만 명의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960만 명(40.0%)이고,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이 1,080만 명(45.0%)으로, 85%가 100인 미만 중소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에 비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68만 명(7.0%)이고, 300인 이상 대기업은 193만 명(8.0%)밖에 안 된다. 직업별로 농림어업숙련직(96.3%)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압도적이고, 판매직(65.3%)과 서비스직(54.4%), 기능직(41.9%)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37.0%)도 5인 미만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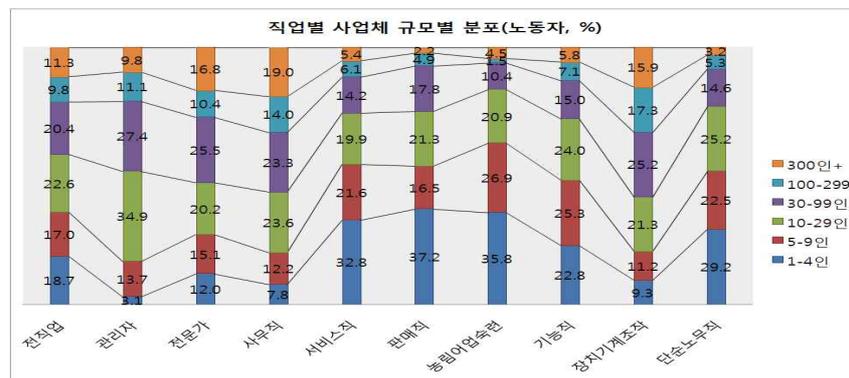
장이 많다. 사무직(31.1%)은 1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가 많다.

<그림 2-6> 직업별 사업체 규모별 분포(취업자)



분석대상을 노동자로 한정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320만 명(18.7%)이고,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025만 명(60.0%)으로, 78.7%가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68만 명(9.8%), 300인 이상 대기업은 193만 명(11.3%)이다. 직업별로 판매직(37.2%)과 농림어업숙련직(35.8%), 서비스직(32.8%), 단순노무직(29.2%)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많고, 장치기계조작조립원(33.2%)과 사무직(33.0%)은 100인 이상 사업장이 많다.

<그림 2-7> 직업별 사업체 규모별 분포(노동자)



〈표 2-7〉 직업별 종사자 규모(2010년 8월)

		수(천명)						비율(%)					
		1-4	5-9	10-29	30-99	100-299	300인~	1-4	5-9	10-29	30-99	100-299	300인~
취 업 자	전직업	9,601	3,341	3,960	3,498	1,676	1,929	40.0	13.9	16.5	14.6	7.0	8.0
	관리자	56	130	184	114	44	38	9.9	23.0	32.5	20.1	7.8	6.7
	전문가	1,231	642	759	942	383	620	26.9	14.0	16.6	20.6	8.4	13.5
	사무직	433	486	847	827	498	676	11.5	12.9	22.5	22.0	13.2	17.9
	서비스직	1,305	387	311	219	94	84	54.4	16.1	13.0	9.1	3.9	3.5
	판매직	1,889	309	324	265	73	32	65.3	10.7	11.2	9.2	2.5	1.1
	농림어업 숙련	1,572	33	16	7	1	3	96.3	2.0	1.0	0.4	0.1	0.2
	기능직	946	458	399	244	116	94	41.9	20.3	17.7	10.8	5.1	4.2
	장치기계 조작	992	238	390	458	314	289	37.0	8.9	14.5	17.1	11.7	10.8
	단순노무직	1,177	658	730	422	153	93	36.4	20.4	22.6	13.1	4.7	2.9
노 동 자	전직업	3,196	2,905	3,858	3,485	1,675	1,929	18.7	17.0	22.6	20.4	9.8	11.3
	관리자	12	53	135	106	43	38	3.1	13.7	34.9	27.4	11.1	9.8
	전문가	444	558	745	939	383	620	12.0	15.1	20.2	25.5	10.4	16.8
	사무직	278	434	837	827	498	676	7.8	12.2	23.6	23.3	14.0	19.0
	서비스직	508	334	308	219	94	84	32.8	21.6	19.9	14.2	6.1	5.4
	판매직	549	244	314	263	73	32	37.2	16.5	21.3	17.8	4.9	2.2
	농림어업 숙련	24	18	14	7	1	3	35.8	26.9	20.9	10.4	1.5	4.5
	기능직	371	413	392	244	116	94	22.8	25.3	24.0	15.0	7.1	5.8
	장치기계 조작	169	203	387	458	314	289	9.3	11.2	21.3	25.2	17.3	15.9
	단순노무직	841	648	726	422	153	93	29.2	22.5	25.2	14.6	5.3	3.2

다. 종사상 지위

2010년 8월 현재 취업자 2,401만 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노동자가 1,705만 명(71.0%)이고 비임금근로자가 696만 명(29.0%)이다. 근대적 임노동관계인 공식고용(상용직과 고용주)은 1,163만 명(48.4%)이고, 전근대적 고용형태인 비공식고용(임시직과 일용직,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은 1,238만 명(51.6%)이다.

직업별로 임금노동자 비중은 사무직(94.2%), 단순노무직(89.1%), 전문가(80.6%), 기능직(72.2%), 관리자(68.6%), 장치기계조작조립원(67.9%),

서비스직(64.5%), 판매직(51.0%), 농림어업숙련직(4.0%) 순이고, 공식고용 비중은 관리자(95.8%), 사무직(80.9%), 전문가(69.0%), 장치기계조작조립원(54.7%), 기능직(43.6%), 서비스직(32.9%), 판매직(26.5%), 단순노무직(25.2%), 농림어업숙련직(3.7%) 순이다. 대체로 상위 직업일수록 공식고용 비중이 높고, 하위 직업일수록 비공식고용 비중이 높다.

〈표 2-8 직업별 증사상 지위(2010년 8월)〉

(단위: 천명, %)

		취업 자	임금 노동 자	비공식고용			비임 금근 로자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종사	공식 고용
				상용	임시	일용					
수	전직업	24,004	17,046	10,150	5,122	1,774	6,958	1,478	4,150	1,330	11,628
	관리자	566	388	370	18		178	172	5	1	542
	전문가	4,577	3,689	2,869	801	19	888	291	559	38	3,160
	사무직	3,766	3,548	2,987	523	38	218	60	37	121	3,047
	서비스직	2,399	1,547	542	754	251	852	247	407	198	789
	판매직	2,891	1,475	448	904	123	1,416	317	826	273	765
	농림어업 숙련	1,632	66	13	29	24	1,566	48	1,024	494	61
	기능직	2,258	1,631	766	432	433	627	218	351	58	984
	장치기계 조작	2,682	1,820	1,368	389	63	862	98	720	44	1,466
단순노무직	3,233	2,882	787	1,272	823	351	27	221	103	814	
비 율	전직업	100.0	71.0	42.3	21.3	7.4	29.0	6.2	17.3	5.5	48.4
	관리자	100.0	68.6	65.4	3.2		31.4	30.4	0.9	0.2	95.8
	전문가	100.0	80.6	62.7	17.5	0.4	19.4	6.4	12.2	0.8	69.0
	사무직	100.0	94.2	79.3	13.9	1.0	5.8	1.6	1.0	3.2	80.9
	서비스직	100.0	64.5	22.6	31.4	10.5	35.5	10.3	17.0	8.3	32.9
	판매직	100.0	51.0	15.5	31.3	4.3	49.0	11.0	28.6	9.4	26.5
	농림어업 숙련	100.0	4.0	0.8	1.8	1.5	96.0	2.9	62.7	30.3	3.7
	기능직	100.0	72.2	33.9	19.1	19.2	27.8	9.7	15.5	2.6	43.6
	장치기계 조작	100.0	67.9	51.0	14.5	2.3	32.1	3.7	26.8	1.6	54.7
단순노무직	100.0	89.1	24.3	39.3	25.5	10.9	0.8	6.8	3.2	25.2	

주: 공식고용 = 상용직 + 고용주, 비공식고용 = 임시직 + 일용직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제 3 장
직업별 고용지표 II
고용조건 (노동자, 201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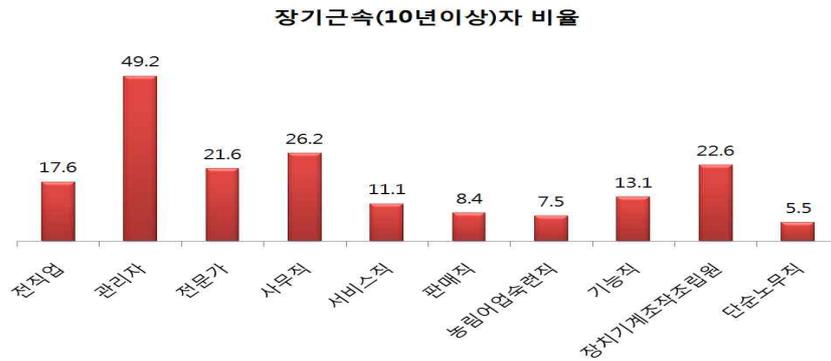
1. 고용안정(근속년수)

ILO와 OECD는 고용안정의 대위변수로 근속년수를 사용하고 있다. 장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0년 이상)과 단기근속자 비율(근속년수 1년 미만), 직장유지율(장기근속자 비율 - 단기근속자 비율)과 평균 근속년수 4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장기근속자 비율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는 관리자(49.2%)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사무직(26.2%), 장치기계조작조립원(22.6%), 전문가(21.6%), 기능직(13.1%), 서비스직(11.1%) 순이며, 판매직(8.4%)과 농림어업숙련직(7.5%), 단순노무직(5.5%)은 한 자리수로 가장 적다.

〈그림 3-1〉 장기근속자(10년 이상) 비율



나. 단기근속자 비율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는 농림어업숙련직(67.2%)과 단순노무직(60.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직(50.2%), 기능직(48.1%), 판매직(42.3%), 장치기계조작조립원(27.7%), 전문가(26.8%), 사무직(24.2%) 순이며, 관리자(9.8%)가 가장 적다.

〈그림 3-2〉 단기근속자(1년 미만) 비율



다. 직장유지율

직장유지율(장기근속자 비율 - 단기근속자 비율)은 -19.8%다. 그만큼 장기근속자보다 단기근속자가 많다. 직업별로 직장유지율은 관리자(39.4%)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무직(2.1%), 장치기계조작조립원(-5.1%), 전문가(-5.2%) 순이다. 판매직(-33.9%)과 기능직(-35.0%), 서비스직(-39.1%), 단순노무직(-55.3%), 농림어업숙련직(-59.7%)은 장기근속자보다 단기근속자가 훨씬 많다.

〈그림 3-3〉 직장유지율



라. 평균 근속년수

근속년수 평균값은 5.0년으로 관리자(12.2년)가 가장 길고, 사무직(6.9년), 장치기계조작조립원(6.1년), 전문가(6.0년), 기능직(3.8년), 서비스직(3.3년), 판매직(3.1년) 순이며, 농림어업숙련직(2.2년)과 단순노무직(2.1년)이 가장 짧다.

근속년수 중위값은 1.9년으로 관리자(9.5년)가 가장 길고, 사무직(3.8년), 장치기계조작조립원(3.2년), 전문가(2.9년), 판매직(1.3년), 기능직(1.1년), 서비스직(0.9년) 순이며, 단순노무직(0.5년)과 농림어업숙련직(0.4년)이 가장 짧다.

<그림 3-4> 근속년수



마. 장기-단기 근속자 비율과 평균 근속년수

장기근속자와 단기근속자 비율은 상관계수가 -0.897***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직장유지율과 평균 근속년수는 상관계수가 0.975***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장기근속자가 많은 직업일수록 단기근속자가 적고, 직장유지율이 높을수록 평균 근속년수가 길다.

<표 3-1> 직업별 근속년수 분포와 평균값(2010년 8월, 임금노동자)(단위: %, 년)

	근속년수 분포(%)						직장 유지율 (%)	근속년수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값	중앙 값
전직업	37.4	12.8	8.5	10.3	13.5	17.6	-19.8	4.95	1.92
관리자	9.8	9.3	6.7	8.8	16.2	49.2	39.4	12.22	9.50
전문가	26.8	13.9	9.6	11.8	16.4	21.6	-5.2	6.03	2.92
사무직	24.2	10.8	8.9	12.0	17.8	26.2	2.1	6.87	3.75
서비스직	50.2	15.2	7.5	8.0	8.0	11.1	-39.1	3.33	0.92
판매직	42.3	17.6	10.0	9.9	11.9	8.4	-33.9	3.09	1.25
농림어업·숙련직	67.2	7.5	1.5	9.0	7.5	7.5	-59.7	2.23	0.42
기능직	48.1	11.4	7.9	8.3	11.1	13.1	-35.0	3.77	1.08
장치기계·조작조립원	27.7	12.2	9.0	12.0	16.5	22.6	-5.1	6.05	3.17
단순노무직	60.9	12.1	6.6	7.7	7.2	5.5	-55.3	2.09	0.50

2. 비정규직

가.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은 50.4%로,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직업별로 단순노무직(86.8%)과 농림어업숙련직(84.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판매직(76.0%), 서비스직(75.2%), 기능직(61.1%), 장치기계조작조립원(33.5%), 전문가(32.8%), 사무직(24.7%) 순이며, 관리자(14.5%)가 가장 적다. 단순노무직과 농림어업숙련직은 10명 중 8~9명, 판매직과 서비스직은 4명 중 3명꼴로 비정규직이다.

〈그림 3-5〉 비정규직



나. 세부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는 단순노무직(27.2%)과 농림어업숙련직(21.5%), 전문가(14.4%), 서비스직(14.0%), 사무직(12.8%), 기능직(10.8%) 등 대부분의 직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단순노무직(21.4%)과 서비스직(18.7%), 판매직(13.7%), 호출근로는 농림어업숙련직(21.2%)과 기능직(19.4%), 단순노무직(15.4%)에서 많이 사용하고, 특수고용형태는 판매직(23.4%), 용역근로는 단순노무직(13.4%)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표 3-2〉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2010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천명, %

		비정 규직	장기	한시	기간	시간	호출 근로	특수	파견 근로	용역 근로	가내 근로
			임시 근로	근로	제 근로	제 근로		고용 형태			
수	전직업	8,593	5,024	3,401	2,494	1,621	869	589	210	608	69
	관리자	56	17	36	32	3	-	2	1	5	-
	전문가	1,211	567	627	532	296	4	100	29	7	5
	사무직	876	329	520	454	120	3	21	22	32	5
	서비스직	1,164	759	384	217	289	54	14	24	43	2
	판매직	1,121	837	265	123	202	15	345	32	29	-
	농림어업 숙련	57	39	18	14	5	14	-	-	3	-
	기능직	997	717	264	175	61	317	9	19	51	4
	장치기계 조작	609	363	225	162	27	19	25	19	51	3
	단순노무직	2,502	1,396	1,062	785	618	443	73	64	387	50
비 율	전직업	50.4	29.5	20.0	14.6	9.5	5.1	3.5	1.2	3.6	0.4
	관리자	14.5	4.3	9.2	8.2	0.8	-	0.6	0.2	1.3	-
	전문가	32.8	15.4	17.0	14.4	8.0	0.1	2.7	0.8	0.2	0.1
	사무직	24.7	9.3	14.7	12.8	3.4	0.1	0.6	0.6	0.9	0.2
	서비스직	75.2	49.0	24.8	14.0	18.7	3.5	0.9	1.5	2.8	0.1
	판매직	76.0	56.8	18.0	8.3	13.7	1.0	23.4	2.2	1.9	0.0
	농림어업 숙련	84.8	58.3	26.6	21.5	6.9	21.2	0.7	-	4.3	-
	기능직	61.1	44.0	16.2	10.8	3.8	19.4	0.5	1.2	3.1	0.3
	장치기계 조작	33.5	19.9	12.4	8.9	1.5	1.1	1.4	1.1	2.8	0.2
	단순노무직	86.8	48.4	36.9	27.2	21.4	15.4	2.5	2.2	13.4	1.7

3. 임금수준

가. 월평균임금

월평균 임금은 관리자(461만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전문가(255만원), 사무직(230만원), 장치기계조작조립원(197만원), 기능직(184만원), 판매직(153만원), 서비스직(136만원), 농림어업숙련직(130만원) 순이며, 단순노무직(99만원)이 가장 적다.

관리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가는 55.3, 사무직은 49.9,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은 42.7, 기능직은 39.9, 판매직은 33.2, 서비스직은 29.5, 농림어업숙련직은 28.2, 단순노무직은 21.5으로, 직업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그림 3-6〉 월평균임금(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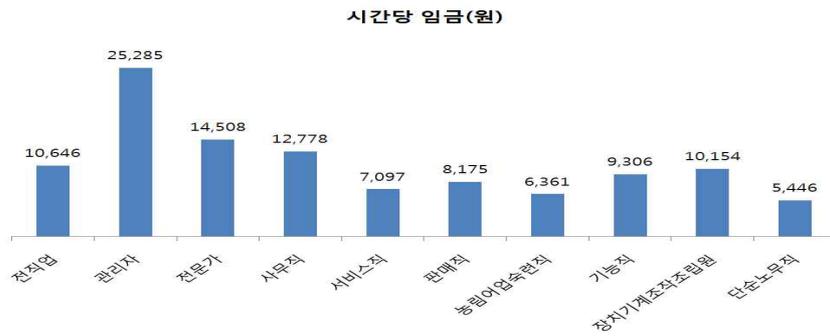


나. 시간당 임금

시간당 임금도 관리자(2만 5,285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전문가(1만 4,508원), 사무직(1만 2,778원), 장치기계조작조립원(1만 154원), 기능직(9,306원), 판매직(8,175원), 서비스직(7,097원), 농림어업숙련직(6,361원) 순이며, 단순노무직(5,446원)이 가장 적다.

관리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가는 57.4, 사무직은 50.5,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은 40.2, 기능직은 36.8, 판매직은 32.3, 서비스직은 28.1, 농림어업숙련직은 25.2, 단순노무직은 21.5으로, 직업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그림 3-7〉 시간당 임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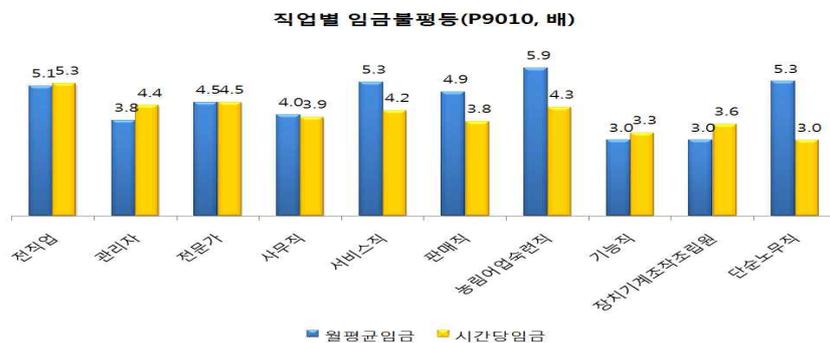


4.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가. 임금불평등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임금불평등(P9010)은 농림어업숙련직(5.9배)과 단순노무직(5.3배), 서비스직(5.3배)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판매직(4.9배), 전문가(4.5배), 사무직(4.0배) 순이며, 기능직(3.0배)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3.0배)이 가장 작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전문가(4.5배)가 가장 크고, 관리자(4.4배), 농림어업숙련직(4.3배), 서비스직(4.2배), 사무직(3.9배), 판매직(3.8배), 장치기계조작조립원(3.6배), 기능직(3.3배) 순이며, 단순노무직(3.0배)이 가장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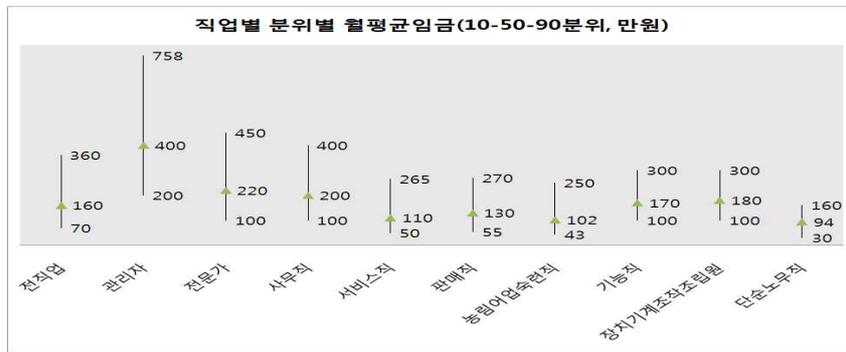
〈그림 3-8〉 직업별 임금불평등(P9010, 배)



나. 직업별 분위별 임금격차

다음 그림은 각 직업별로 10분위와 50분위, 90분위 월평균 임금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관리자는 10분위가 200만원, 50분위가 400만원, 90분위가 758만원이고 임금불평등(P9010)은 3.8배다. 이에 비해 단순노무직은 10분위가 30만원, 50분위가 94만원, 90분위가 160만원이고 임금불평등(P9010)은 5.3배다. 관리자 10분위(200만원)가 단순노무직 90분위(160만원)보다 임금수준이 높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직업 간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

〈그림 3-9〉 직업별 분위별 월임금불평등(10-50-90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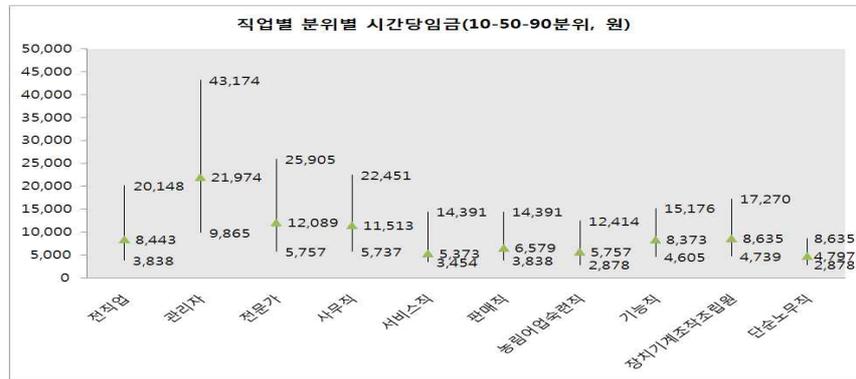


〈표 3-3〉 직업별 월평균 임금과 분위별 분포 (2010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만원, 배)

	평균	분위별 월평균임금(만원)					배율(배)			
		10	30	50	70	90	p9010	p5010	p9050	
전직업	195	70	120	160	230	360	5.14	2.29	2.25	
관리자	461	200	300	400	500	758	3.79	2.00	1.90	
전문가	255	100	150	220	300	450	4.50	2.20	2.05	
사무직	230	100	150	200	280	400	4.00	2.00	2.00	
서비스직	136	50	80	110	150	265	5.30	2.20	2.41	
판매직	153	55	100	130	180	270	4.91	2.36	2.08	
농림어업숙련직	130	43	80	102	153	250	5.85	2.38	2.46	
기능직	184	100	145	170	200	300	3.00	1.70	1.76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97	100	150	180	220	300	3.00	1.80	1.67	
단순노무직	99	30	70	94	120	160	5.33	3.13	1.70	

다음 그림은 각 직업별로 10분위와 50분위, 90분위 시간당 임금을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관리자는 10분위가 9,865원, 50분위가 2만 1,974원, 90분위가 4만 3,174원이고 임금불평등(P9010)은 4.4배다. 이에 비해 단순노무직은 10분위가 2,878원, 50분위가 4,797원, 90분위가 8,635원이고 임금불평등(P9010)은 3.0배다. 관리자 10분위(9,865원)가 단순노무직 90분위(8,635만원)보다 시간당 임금이 높다.

〈그림 3-10〉 직업별 분위별 시간당 임금(10-50-90분위)



〈표 3-4〉 직업별 시간당 임금과 분위별 분포 (2010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원,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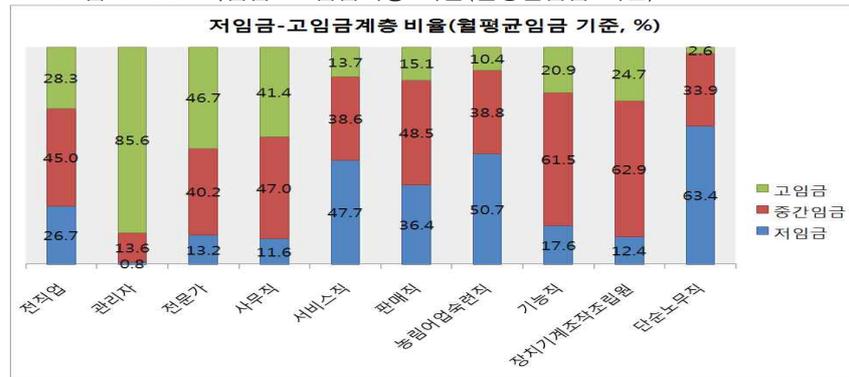
	평균	분위별 시간당 임금(원)					배율(배)		
		10	30	50	70	90	p9010	p5010	p9050
전직업	10,646	3,838	5,757	8,443	11,769	20,148	5.25	2.20	2.39
관리자	25,285	9,865	15,831	21,974	28,783	43,174	4.38	2.23	1.96
전문가	14,508	5,757	8,817	12,089	17,270	25,905	4.50	2.10	2.14
사무직	12,778	5,737	8,187	11,513	15,351	22,451	3.91	2.01	1.95
서비스직	7,097	3,454	4,605	5,373	6,908	14,391	4.17	1.56	2.68
판매직	8,175	3,838	5,099	6,579	8,635	14,391	3.75	1.71	2.19
농림어업·숙련직	6,361	2,878	3,860	5,757	7,328	12,414	4.31	2.00	2.16
기능직	9,306	4,605	6,640	8,373	10,362	15,176	3.30	1.82	1.81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0,154	4,739	6,908	8,635	11,513	17,270	3.64	1.82	2.00
단순노무직	4,446	2,878	3,873	4,797	5,987	8,635	3.00	1.67	1.80

다. 저임금-고임금계층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인 107만 원 미만)은 26.7%다. 관리자(0.8%)는 저임금계층이 거의 없고, 사무직(11.6%)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12.4%), 전문가(13.2%), 기능직(17.6%)은 10%대로 적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판매직(36.4%)과 서비스직(47.7%), 농림어업숙련직(50.7%)과 단순노무직(63.4%)은 1/3 내지 2/3가 저임금계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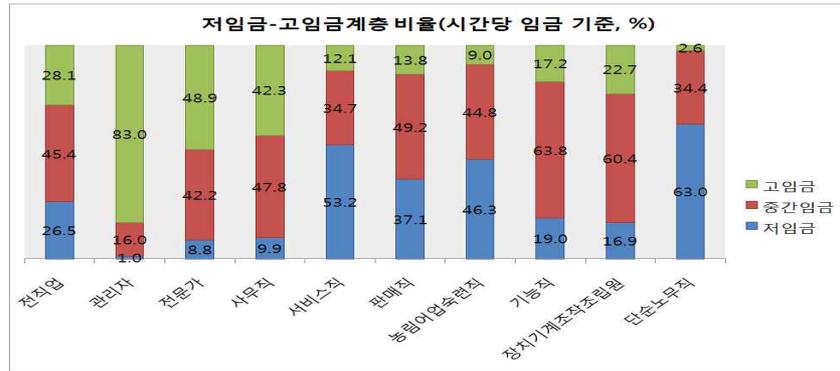
고임금계층(중위임금의 3/2인 240만 원 이상)은 28.3%다. 관리자(85.6%)는 대부분 고임금계층이고, 전문가(46.7%)와 사무직(41.4%)은 절반가량이 고임금계층이다. 다음으로는 장치기계조작조립원(24.7%), 기능직(20.9%), 판매직(15.1%), 서비스직(13.7%), 농림어업숙련직(10.4%) 순이며, 단순노무직(2.6%)은 거의 없다.

〈그림 3-11〉 저임금-고임금계층 비율(월평균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26.5%다. 직업별로 관리자(1.0%)는 저임금계층이 거의 없고, 전문가(8.8%)와 사무직(11.6%), 장치기계조작조립원(16.9%), 기능직(19.0%)은 10%대다. 하지만 판매직(37.1%)과 농림어업숙련직(46.3%), 서비스직(53.2%), 단순노무직(63.0%)은 1/3 내지 2/3가 저임금계층이다. 고임금계층은 28.1%다. 관리자(83.0%)는 대부분 고임금계층이고, 전문가(48.9%)와 사무직(42.3%)은 절반가량 고임금계층이다. 다음으로는 장치기계조작조립원(22.7%), 기능직(17.2%), 판매직(13.8%), 서비스직(12.1%), 농림어업숙련직(9.0%) 순이며, 단순노무직(2.6%)은 고임금계층이 거의 없다.

〈그림 3-12〉 저임금-고임금계층 비율(시간당 임금 기준)



라. 최저임금 미달자

시간당 임금이 2010년 법정 최저임금(4,110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196만 명(11.5%)이다. 관리자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한 명도 없고, 다음으로는 사무직(2.6%)과 전문가(2.7%), 장치기계조작조립원(5.2%), 기능직(7.2%), 판매직(15.2%), 서비스직(21.5%) 순이다. 단순노무직(33.8%)과 농림어업숙련직(34.3%)은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달자다.

〈표 3-5〉 직업별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 (2010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천원, %)

		월평균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최저임금 4,110원 미만
		저 임금	중간 임금	고 임금	저 임금	중간 임금	고 임금	
수	전직업	4,552	7,667	4,831	4,516	7,741	4,793	1,958
	관리자	3	53	333	4	62	322	
	전문가	486	1,482	1,721	326	1,559	1,805	98
	사무직	413	1,667	1,469	352	1,697	1,500	94
	서비스직	738	598	212	823	537	188	333
	판매직	537	715	223	547	725	203	224
	농림어업 숙련직	34	26	7	31	30	6	23
	기능직	287	1,003	341	309	1,040	281	118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26	1,145	449	308	1,099	413	95
	단순노무직	1,828	978	76	1,816	992	75	973
비 율	전직업	26.7	45.0	28.3	26.5	45.4	28.1	11.5
	관리자	0.8	13.6	85.6	1.0	16.0	83.0	-
	전문가	13.2	40.2	46.7	8.8	42.2	48.9	2.7
	사무직	11.6	47.0	41.4	9.9	47.8	42.3	2.6
	서비스직	47.7	38.6	13.7	53.2	34.7	12.1	21.5
	판매직	36.4	48.5	15.1	37.1	49.2	13.8	15.2
	농림어업 숙련직	50.7	38.8	10.4	46.3	44.8	9.0	34.3
	기능직	17.6	61.5	20.9	19.0	63.8	17.2	7.2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2.4	62.9	24.7	16.9	60.4	22.7	5.2
	단순노무직	63.4	33.9	2.6	63.0	34.4	2.6	33.8

주: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107만원 미만', 중간임금 계층은 '107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고임금 계층은 '240만원 이상' 계층임. 시간당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5629원 미만', 중간임금 계층은 '5629원 이상 12,664원 미만', 고임금 계층은 '12,664원 이상' 계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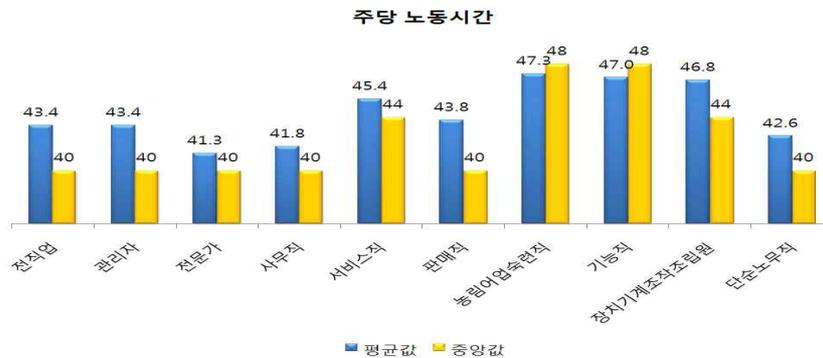
5. 노동시간

가. 평균 노동시간

주당 노동시간 평균은 43.4시간이다. 전문가(41.3시간)와 사무직(41.8시간)이 가장 짧고,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42.6시간), 관리자(43.4시간), 판매직(43.8시간), 서비스직(45.4시간) 순이며, 장치기계조작조립원(46.8시간), 기능직(47.0시간), 농림어업숙련직(47.3시간)이 가장 길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기능직과 농림어업숙련직이 48시간으로 가장 길고, 서비스직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이 44시간으로 다음이며, 관리자와 전문직, 사무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40시간이다.

〈그림 3-13〉 주당 노동시간



나. 단시간-장시간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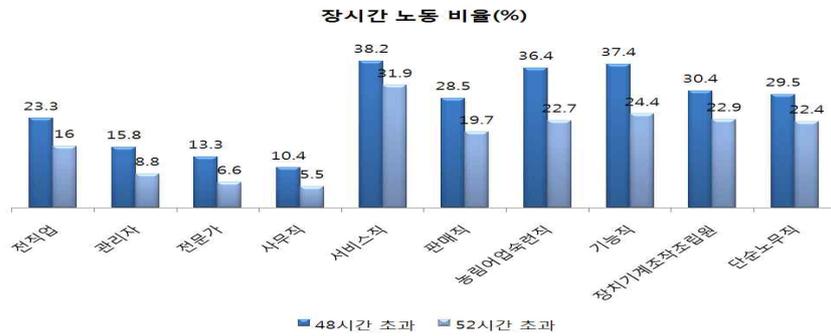
단시간 노동(주 35시간 이하) 비율은 10.3%다. 관리자(1.3%)와 장치기계조작조립원(1.8%)은 낮지만, 사무직(3.7%), 기능직(4.5%), 전문가(8.9%), 농림어업숙련직(9.1%), 판매직(14.6%), 서비스직(19.7%), 단순노무직(22.9%) 순으로 단시간 노동 비율이 높다.

장시간 노동(주 48시간 초과)은 23.3%로, 4명 중 1명꼴로 장시간 노동 하고 있다. 사무직(10.4%), 전문가(13.3%), 관리자(15.8%) 등 사무관리 전문직은 10%대인데, 판매직(28.5%)과 단순노무직(29.5%), 장치기계조

작조립원(30.4%), 농림어업숙련직(36.4%), 기능직(37.4%), 서비스직(38.2%)은 대부분 30%대를 넘어선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넘어서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주 52시간 초과)도 16.0%다. 사무직(5.5%), 전문가(6.6%), 관리자(8.8%) 등 사무관리전문직은 한 자리 수인데, 판매직(19.7%)과 단순노무직(22.4%), 농림어업숙련직(22.7%), 장치기계조작조립원(22.9%), 기능직(24.4%), 서비스직(31.9%)은 20%대를 넘어선다.

<그림 3-14> 장시간 노동 비율



<표 3-6> 직업별 근로시간 평균값과 분포(2010년 8월, 임금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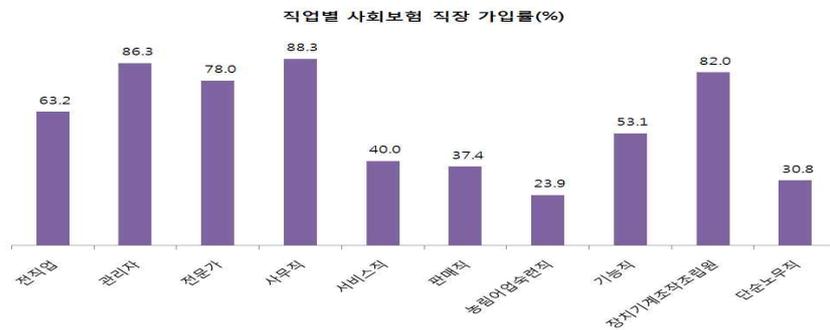
(단위: 시간, %)

	근로시간						근로시간 분포(%)					
	평균 값	중앙 값	-18 시간	18	36	40	41	45	49	52+	단	장
			시간	-35	-39	시간	-44	-48	-52	시간	시간	시간
전직업	43.4	40	3.1	7.2	1.6	43.7	7.0	14.1	7.3	16.0	10.3	23.3
관리자	43.4	40	0.3	1.0	0.3	58.4	14.0	10.3	7.0	8.8	1.3	15.8
전문가	41.3	40	3.4	5.5	1.4	50.8	13.1	12.5	6.7	6.6	8.9	13.3
사무직	41.8	40	1.3	2.3	0.6	67.0	6.5	11.8	4.8	5.5	3.7	10.4
서비스직	45.4	44	4.9	14.8	2.8	25.4	3.6	10.3	6.3	31.9	19.7	38.2
판매직	43.8	40	3.2	11.4	2.7	33.2	4.1	16.9	8.8	19.7	14.6	28.5
농림어업 숙련직	47.3	48	3.0	6.1	-	27.3	7.6	19.7	13.6	22.7	9.1	36.4
기능직	47.0	48	0.6	3.9	1.2	30.0	5.5	21.5	13.0	24.4	4.5	37.4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46.8	44	0.2	1.6	0.4	44.8	5.3	17.3	7.6	22.9	1.8	30.4
단순노무직	42.6	40	7.7	15.2	3.2	26.3	4.1	13.9	7.1	22.4	22.9	29.5

6. 사회보험 가입

전체 노동자의 63.2%가 직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¹⁾ 모두 가입하고 있다. 이들 공식고용 비중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88.3%)과 관리자(86.3%), 장치기계조작조립원(82.0%), 전문가(78.0%)는 상대적으로 높고, 기능직(53.1%)과 서비스직(40.0%), 판매직(37.4%), 단순노무직(30.8%), 농림어업숙련직(23.9%)은 낮다.

〈그림 3-15〉 직업별 사회보험 직장 가입률



〈표 3-7〉 직업별 사회보험 가입률(2010년 8월)

(단위: %)

	직장 가입률				적용률(지역가입, 비대상 포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식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직업	65.0	67.0	58.6	63.2	71.7	97.3	66.1
관리자	90.7	95.7	82.5	86.3	92.8	100.0	90.7
전문가	80.2	80.5	64.0	78.0	84.3	98.4	79.4
사무직	90.0	90.2	76.3	88.3	92.1	99.3	89.2
서비스직	42.0	42.5	32.3	40.0	49.6	94.7	41.8
판매직	38.4	38.6	38.6	37.4	52.9	96.1	38.7
농림어업 숙련직	23.7	27.1	36.5	23.9	43.3	92.5	36.4
기능직	54.6	55.7	56.4	53.1	69.2	97.4	57.1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83.3	85.4	83.0	82.0	87.1	98.8	84.1
단순노무직	32.4	41.0	37.3	30.8	41.4	94.5	38.6

주: 공식고용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비대상자 포함)을 모두 적용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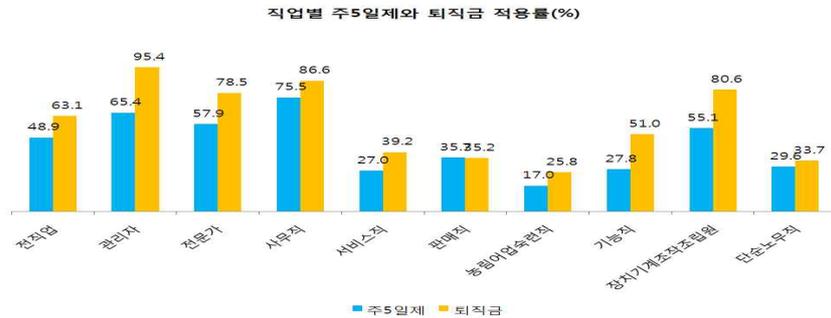
1) 고용보험은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비대상자까지 포함.

7. 노동조건 적용

2010년 8월 현재 사무직(75.5%), 관리자(65.4%), 전문가(57.9%), 장치기계조작조립원(55.1%)은 주5일 근무제를 절반 이상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판매직(35.7%)과 단순노무직(29.6%), 기능직(27.8%), 서비스직(27.0%), 농림어업숙련직(17.0%)은 그 적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관리자(95.4%), 사무직(86.6%), 장치기계조작조립원(80.6%), 전문가(78.5%)는 10명 중 8, 9명이 퇴직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기능직(51.0%), 서비스직(39.2%) 판매직(35.2%)과 단순노무직(33.7%), 농림어업숙련직(25.8%)은 적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그림 3-16〉 직업별 주5일제와 퇴직금 적용률



〈표 3-8〉 직업별 노동조건 적용실태 (2010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시간, %)

	유급	주5	퇴직금	상여	시간외	근로계약	교육훈	교육
	휴가	일제						
전직업	58.7	48.9	63.1	64.7	44.4	48.2	31.2	11.4
관리자	92.0	65.4	95.4	96.5	59.0	53.9	36.2	17.7
전문가	75.5	57.9	78.5	79.4	52.7	57.1	42.8	18.2
사무직	84.4	75.5	86.6	87.1	61.3	59.9	40.5	16.6
서비스직	36.0	27.0	39.2	43.0	25.9	31.4	27.1	10.1
판매직	31.7	35.7	35.2	41.7	20.8	37.4	30.2	9.5
농림어업 숙련직	22.1	17.0	25.8	30.3	16.6	28.1	11.5	3.2
기능직	44.8	27.8	51.0	54.9	40.9	35.4	18.2	5.9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70.9	55.1	80.6	80.5	68.7	57.8	30.7	7.4
단순노무직	28.1	29.6	33.7	33.7	20.7	37.7	14.8	3.0

8. 노조가입

직장에 노조가 있는 사람은 421만 명(24.7%)이고,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195만 명(11.4%)이다. 직업별 노조가입률은 장치기계조작조립원(26.1%)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사무직(18.3%), 전문가(11.7%), 기능직(8.5%), 관리자(5.9%) 순이며, 판매직(4.1%)과 서비스직(3.8%), 단순노무직(3.7%), 농림어업숙련직(3.0%)은 모두 3~4%로 매우 낮다.

〈표 3-9〉 직업별 노조유무와 가입현황(2010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천명, %)

	수(천명)				비율(%)				
	노조 없음	노조 있음	가입 자격	노조 가입	유노 조율	유자 격율	노조 가입 률	자격 /노조	가입 /자격
전직업	12,840	4,205	2,863	1,945	24.7	16.8	11.4	68.1	67.9
관리자	273	114	34	23	29.5	8.8	5.9	29.8	67.6
전문가	2,547	1,142	820	430	31.0	22.2	11.7	71.8	52.4
사무직	2,207	1,342	931	649	37.8	26.2	18.3	69.4	69.7
서비스직	1,362	186	89	59	12.0	5.7	3.8	47.8	66.3
판매직	1,321	153	88	60	10.4	6.0	4.1	57.5	68.2
농림어업 숙련직	61	5	3	2	7.6	4.5	3.0	60.0	66.7
기능직	1,411	219	176	139	13.4	10.8	8.5	80.4	79.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178	641	574	475	35.2	31.6	26.1	89.5	82.8
단순노무직	2,480	403	148	108	14.0	5.1	3.7	36.7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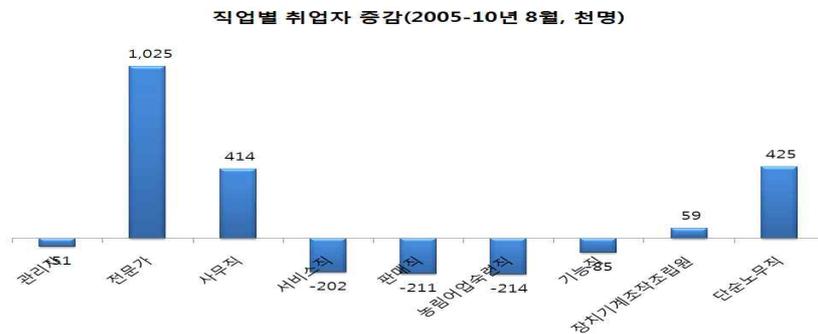
제 4 장

직업별 고용실태 변화(2005~10년 8월)

1. 전체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취업자는 2005년 8월 2,285만 명에서 2010년 8월 2,401만 명으로 116만 명(5.1%) 증가했다. 직업별로 전문가는 103만 명(28.8%), 단순노무직은 43만 명(15.1%), 사무직은 41만 명(12.4%),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은 6만 명(2.2%) 증가했고, 농림어업숙련직은 -21만 명(-11.6%), 판매직은 -21만 명(-6.8%), 서비스직은 -20만 명(-7.8%), 기능직은 -9만 명(-3.6%), 관리자는 -5만 명(-8.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직업별 구성비는 전문가(3.5%p)와 사무직(1.0%p), 단순노무직(1.2%p)은 증가하고, 판매서비스직 등 다른 직업은 모두 감소했다.

〈그림 4-1〉 직업별 취업자 증감(2005-10년 8월)



임금노동자는 2005년 8월 1,497만 명에서 2010년 8월 1,705만 명으로 208만 명(13.9%) 증가했다. 직업별로 기능직만 -2만 명(-1.2%) 감소하고 다른 직업은 모두 증가했다. 전문가는 91만 명(32.9%), 단순노무직은 45만 명(18.3%), 사무직은 38만 명(12.1%), 서비스직은 12만 명(8.3%), 관리자는 10만 명(35.2%),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은 9천 명(0.5%), 농림어업숙련직은 8천 명(1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직업별 구성비는 전문가(3.1%p)와 단순노무직(0.6%p), 관리자(0.4%p)는 증가하고, 생산직과 판매서비스직 등 다른 직업은 모두 감소했다.

이처럼 임금노동자가 증가해도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감소했기 때문인데, 비임금근로자는 2005년 8월 788만 명에서 2010년 8월 696만 명으로 -92만 명(-11.7%) 감소했다. 직업별로 전문가는 11만 명(14.4%),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은 5만 명(6.2%), 사무직은 3만 명(17.2%) 증가했고, 판매직은 -33만 명(-19.0%), 서비스직은 -32만 명(-27.4%), 농림어업숙련직은 -22만 명(-12.4%), 관리자는 -15만 명(-46.2%), 기능직은 -7만 명(-9.4%), 단순노무직은 -2만 명(-5.4%)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직업별 구성비는 전문가와 사무직, 기능직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 단순노무직은 증가하고, 판매서비스직과 관리자, 농림어업숙련직은 감소했다.

〈표 4-1〉 직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2005-1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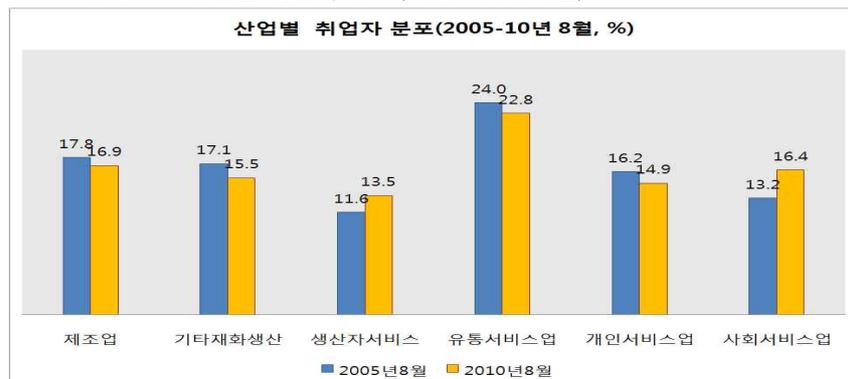
		수(천명)			증가 율(%)	구성비(%)		
		2005년	2010년	증감		2005년	2010년	증감
취 업 자	전직업	22,845	24,005	1,160	5.1	100.0	100.0	
	관리자	616	565	-51	-8.3	2.7	2.4	-0.3
	전문가	3,553	4,578	1,025	28.8	15.6	19.1	3.5
	사무직	3,352	3,766	414	12.4	14.7	15.7	1.0
	서비스직	2,602	2,400	-202	-7.8	11.4	10.0	-1.4
	판매직	3,102	2,891	-211	-6.8	13.6	12.0	-1.6
	농림어업 숙련직	1,846	1,632	-214	-11.6	8.1	6.8	-1.3
	기능직	2,343	2,258	-85	-3.6	10.3	9.4	-0.9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623	2,682	59	2.2	11.5	11.2	-0.3
단순노무직	2,808	3,233	425	15.1	12.3	13.5	1.2	
노 동 자	전직업	14,969	17,047	2,078	13.9	100.0	100.0	
	관리자	287	388	101	35.2	1.9	2.3	0.4
	전문가	2,776	3,689	913	32.9	18.5	21.6	3.1
	사무직	3,166	3,548	382	12.1	21.2	20.8	-0.4
	서비스직	1,429	1,548	119	8.3	9.5	9.1	-0.4
	판매직	1,353	1,474	121	8.9	9.0	8.6	-0.4
	농림어업 숙련직	59	67	8	13.6	0.4	0.4	-
	기능직	1,651	1,631	-20	-1.2	11.0	9.6	-1.4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811	1,820	9	0.5	12.1	10.7	-1.4
단순노무직	2,437	2,882	445	18.3	16.3	16.9	0.6	
비 임 금 근 로 자	전직업	7,876	6,958	-918	-11.7	100.0	100.0	
	관리자	329	177	-152	-46.2	4.2	2.5	-1.6
	전문가	777	889	112	14.4	9.9	12.8	2.9
	사무직	186	218	32	17.2	2.4	3.1	0.8
	서비스직	1,173	852	-321	-27.4	14.9	12.2	-2.6
	판매직	1,749	1,417	-332	-19.0	22.2	20.4	-1.8
	농림어업 숙련직	1,787	1,565	-222	-12.4	22.7	22.5	-0.2
	기능직	692	627	-65	-9.4	8.8	9.0	0.2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812	862	50	6.2	10.3	12.4	2.1
단순노무직	371	351	-20	-5.4	4.7	5.0	0.3	

2. 일자리 속성

가. 산업

지난 5년 동안 증가한 취업자 116만 명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업(92만 명)과 생산자서비스업(59만 명)은 증가하고, 농림어업·건설업(-20만 명)과 개인서비스업(-13만 명), 유통서비스업(-1만 명)과 제조업(-1만 명)은 감소했다. 직업별로 전문가와 사무직, 단순노무직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했고, 산업별로 생산자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은 거의 모든 직업에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산업별 취업자 분포는 사회서비스업이 2005년 8월 13.2%에서 2010년 8월 16.4%로 3.2%p 증가하고, 생산자서비스업은 11.6%에서 13.5%로 1.9%p 증가한데 비해, 농림어업·건설업(-1.6%p)과 개인서비스업(-1.3%p), 유통서비스업(-1.2%p), 제조업(-0.9%p)은 감소했다.

〈그림 4-2〉 산업별 취업자 분포(2005-10년 8월)



지난 5년 동안 증가한 임금노동자 208만 명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업(87만 명)과 생산자서비스업(63만 명), 유통서비스업(26만 명), 개인서비스업(16만 명), 농림어업·건설업(11만 명), 제조업(5만 명) 순으로 모든 산업에서 증가했다. 이에 비해 비임금근로자는 사회서비스업(5만 명)만 증가했을 뿐, 농림어업·건설업(-31만 명), 개인서비스업(-29만 명), 유통서비스업(-27만 명), 제조업(-6만 명), 생산자서비스업(-4만 명) 등 다른 산업은 모두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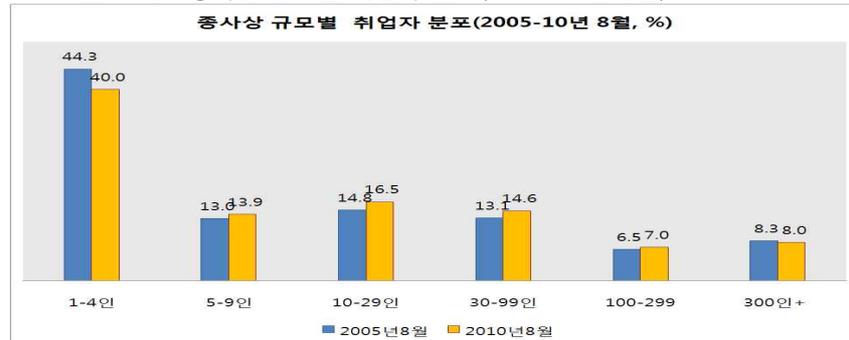
〈표 4-2〉 직업별 산업분포 증감(2005-10년 8월)

		수(천명)						비율(%)					
		제조업	기타재화생산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제조업	기타재화생산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취업자	전직업	-10	-201	590	-13	-132	924	-0.9	-1.6	1.9	-1.2	-1.3	3.2
	관리자	-44	-22	37	-10	-1	-8	-5.6	-2.1	7.8	-0.2	0.5	-0.5
	전문가	52	54	198	206	56	461	-1.3	0.2	0.3	1.7	-0.1	-0.8
	사무직	65	21	146	35	13	133	-0.5	-0.3	1.2	-1.6	-0.3	1.4
	서비스직	-14	-2	4	2	-374	182	-0.5	-0.1	0.5	0.2	-8.6	8.5
	판매직	-5	8	30	-316	66	4	0.0	0.4	1.7	-4.7	2.5	0.1
	농림어업 숙련직	0	-217	1	0	1	0	0.0	-0.2	0.2	0.0	0.0	0.0
	기능직	-104	-100	44	25	47	1	-3.2	-2.9	2.1	1.4	2.6	0.1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6	29	23	28	-12	6	-1.7	0.9	0.8	0.3	-0.5	0.2
단순노무직	56	28	107	17	72	145	-0.6	-1.1	0.8	-1.9	-0.5	3.5	
노동자	전직업	48	112	628	256	156	872	-2.5	-0.6	1.9	-1.0	-0.7	3.0
	관리자	-5	27	50	22	9	-3	-7.8	2.4	7.4	2.1	1.0	-5.1
	전문가	49	61	180	162	55	406	-1.9	0.5	1.3	1.3	0.2	-1.3
	사무직	62	18	153	4	14	132	-0.5	-0.3	1.7	-2.4	-0.2	1.5
	서비스직	-13	-2	22	4	-78	186	-1.0	-0.1	1.0	0.1	-10.5	10.6
	판매직	1	4	57	36	19	3	-0.4	0.2	2.4	-3.5	1.0	0.2
	농림어업 숙련직	0	7	0	0	1	0	-0.2	0.9	-1.5	0.0	0.9	-0.2
	기능직	-63	-54	38	18	37	1	-3.3	-2.8	2.5	1.2	2.4	0.1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8	27	23	-15	5	-4	-1.8	1.5	1.2	-0.9	0.3	-0.2
단순노무직	45	24	105	25	94	151	-1.5	-1.7	0.2	-1.7	0.7	3.9	
비임금근로자	전직업	-58	-313	-38	-269	-288	52	1.6	-1.0	0.0	-0.2	-0.6	0.2
	관리자	-39	-49	-13	-32	-10	-5	2.2	-4.5	0.4	-2.3	-0.5	4.6
	전문가	3	-7	18	44	1	55	0.6	-0.3	-1.0	0.4	-0.3	0.5
	사무직	3	3	-7	31	-1	1	0.0	0.0	-0.5	0.8	-0.1	-0.1
	서비스직	-1	0	-18	-2	-296	-4	0.5	0.0	-0.5	0.1	1.9	-2.1
	판매직	-6	4	-27	-352	47	1	0.4	0.2	-0.7	-1.2	1.5	-0.1
	농림어업 숙련직	0	-224	1	0	0	0	0.2	-1.1	1.7	0.0	-0.9	0.2
	기능직	-41	-46	6	7	10	0	0.1	-0.1	-0.4	0.2	0.2	0.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2	2	0	43	-17	10	0.1	-0.6	-0.4	1.2	-0.8	0.4
단순노무직	11	4	2	-8	-22	-6	0.9	0.6	0.6	-0.2	-1.2	-0.4	

나. 종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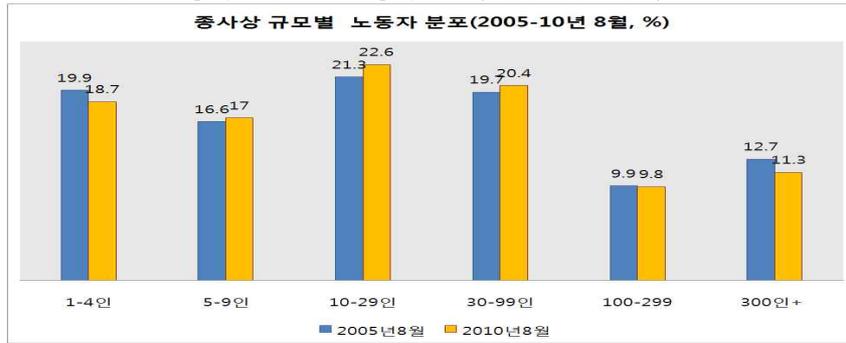
지난 5년 동안 증가한 취업자 116만 명을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53만 명)은 감소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증가했다. 하지만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59만 명,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52만 명,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38만 명 증가한데 비해,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18만 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3만 명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분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05년 8월 44.3%에서 2010년 8월 40.0%로 4.3%p 감소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8.3%에서 8.0%로 0.3%p 감소한데 비해,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14.8%에서 16.5%로 1.7%p 증가하고,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3.1%에서 14.6%로 1.5%p 증가했다.

〈그림 4-3〉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분포(2005-10년 8월)



지난 5년 동안 늘어난 노동자 208만 명을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에서 증가했다. 하지만 규모별로 차이가 큰데, 300인 이상 사업장(3만 명)과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19만 명), 5인 미만 사업장(22만 명)은 소폭 증가한데 비해,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67만 명)과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54만 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종사자 규모별 분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05년 8월 19.9%에서 2010년 8월 18.7%로 1.2%p 감소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12.7%에서 11.3%로 1.4%p 감소한데 비해,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1.3%에서 22.6%로 1.3%p 증가하고,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19.7%에서 20.4%로 0.7%p 증가했다.

〈그림 4-4〉 종사상 규모별 노동자 분포(2005-10년 8월)



〈표 4-3〉 직업별 종사상 규모 증감(2005-10년 8월)

		수(천명)						비율(%)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	300인+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	300인+
취업자	전직업	-531	376	586	516	182	27	-4.3	0.9	1.7	1.5	0.5	-0.3
	관리자	-39	-32	11	5	9	-4	-5.5	-3.3	4.4	2.4	2.1	-0.1
	전문가	224	201	178	190	93	137	-1.4	1.6	0.3	-0.6	0.2	-0.1
	사무직	71	25	93	132	60	33	0.7	-0.8	0.0	1.3	0.1	-1.3
	서비스직	-364	-29	73	82	26	10	-9.7	0.1	3.9	3.8	1.3	0.7
	판매직	-258	45	38	20	-20	-36	-3.9	2.2	2.0	1.3	-0.5	-1.1
	농림어업 숙련직	-220	2	1	1	-1	2	-0.7	0.3	0.2	0.1	0.0	0.1
	기능직	-75	0	-20	22	15	-28	-1.7	0.8	-0.2	1.3	0.8	-1.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40	12	46	26	6	-73	0.7	0.3	1.4	0.6	0.0	-3.0
	단순노무직	90	152	166	38	-6	-14	-2.3	2.4	2.5	-0.6	-1.0	-0.9
노동자	전직업	224	422	671	543	189	30	-1.2	0.4	1.3	0.7	-0.1	-1.4
	관리자	2	18	53	19	12	-4	-0.4	1.5	6.3	-2.9	0.3	-4.8
	전문가	135	172	182	191	96	138	0.9	1.2	-0.1	-1.5	0.1	-0.6
	사무직	46	5	99	139	61	33	0.5	-1.3	0.3	1.6	0.2	-1.3
	서비스직	-80	-1	81	82	26	11	-8.4	-1.9	4.0	4.6	1.3	0.3
	판매직	64	48	43	22	-20	-35	1.4	2.0	1.3	0.0	-2.0	-2.8
	농림어업 숙련직	-2	4	3	1	-1	2	-7.5	3.6	2.6	0.4	-1.8	2.8
	기능직	-43	19	-8	24	15	-28	-2.3	1.4	-0.2	1.7	1.0	-1.6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	1	50	27	6	-73	-0.1	0.0	2.7	1.4	0.3	-4.1
	단순노무직	104	156	168	38	-6	-14	-1.0	2.3	2.3	-1.2	-1.2	-1.2

비 임 금 근 로 자	전직업	-755	-46	-85	-27	-7	-3	-3.1	0.5	0.4	0.8	0.6	1.1
	관리자	-41	-50	-42	-14	-3	0	-5.1	-4.8	-1.9	5.3	1.8	4.7
	전문가	89	29	-4	-1	-3	-1	-2.3	0.4	0.4	0.9	0.1	0.5
	사무직	25	20	-6	-7	-1	0	0.2	0.5	-0.3	-0.3	-0.1	0.0
	서비스직	-284	-28	-8	0	0	-1	-1.3	2.0	-0.1	-0.8	0.0	0.4
	판매직	-322	-3	-5	-2	0	-1	-5.3	0.2	0.7	1.3	1.5	1.7
	농림어업 숙련직	-218	-2	-2	0	0	0	6.8	-3.3	-2.4	-0.3	1.8	-2.7
	기능직	-32	-19	-12	-2	0	0	0.6	-0.6	0.0	-0.4	-0.2	0.6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42	11	-4	-1	0	0	0.8	0.3	-1.3	-0.8	-0.3	1.1
	단순노무직	-14	-4	-2	0	0	0	-1.3	0.1	0.2	0.6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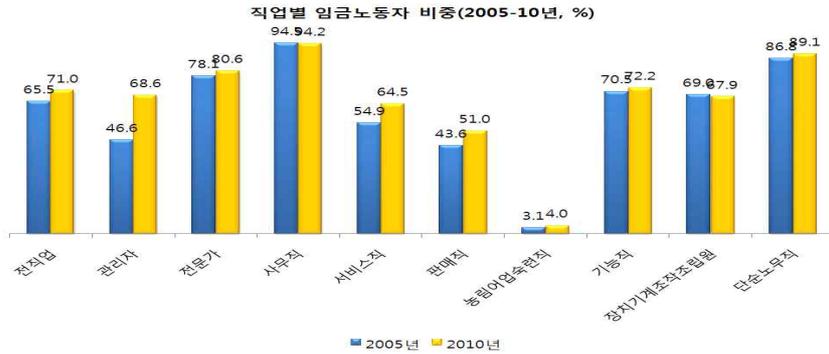
다. 종사상 지위

임금노동자는 2005년 8월 1,497만 명에서 2010년 8월 1,705만 명으로 5년 사이 208만 명 증가했다. 전문가(91만 명)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45만 명), 사무직(38만 명), 판매직(12만 명), 서비스직(12만 명), 관리자(10만 명) 순이다. 하지만 장치기계조작조립원(1만 명)과 농림어업숙련직(8천 명)은 제자리 걸음이고, 기능직은 2만 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임금노동자 비중은 65.5%에서 71.0%로 5.5%p 높아졌다. 장치기계조작조립원(-1.1%p)과 사무직(-0.3%p)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임금노동자 비중이 높아졌는데, 특히 관리자(22.0%p)와 서비스직(9.6%p), 판매직(7.4%p)에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감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노동자 비중 증가와 더불어 상용직과 공식고용(상용직과 고용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즉 전체 취업자 대비 상용직 비중은 모든 직업에서 높아졌고, 공식고용 비중도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높아졌다. 이처럼 임금노동자 비중과 상용직, 공식고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근대적 임노동관계가 진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림 4-5〉 직업별 임금노동자 비중(2005-10년)



〈표 4-4〉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증감 현황(2005-10년 8월) (단위: 천명, %)

		2005년 8월			2010년 8월			증감		
		임금노동	상용	공식고용	임금노동	상용	공식고용	임금노동	상용	공식고용
수	전직업	14,967	7,926	9,626	17,046	10,150	11,628	2,079	2,224	2,002
	관리자	287	275	600	388	370	542	101	95	-58
	전문가	2,776	2,091	2,330	3,689	2,869	3,160	913	778	830
	사무직	3,167	2,525	2,560	3,548	2,987	3,047	381	462	487
	서비스직	1,429	334	697	1,547	542	789	118	208	92
	판매직	1,353	317	635	1,475	448	765	122	131	130
	농림어업숙련직	58	14	50	66	13	61	8	-1	11
	기능직	1,651	605	864	1,631	766	984	-20	161	120
	장치기계조작조립원	1,810	1,251	1,344	1,820	1,368	1,466	10	117	122
	단순노무직	2,436	514	546	2,882	787	814	446	273	268
비율	전직업	65.5	34.7	42.1	71.0	42.3	48.4	5.5	7.6	6.3
	관리자	46.6	44.6	97.4	68.6	65.4	95.8	22.0	20.8	-1.6
	전문가	78.1	58.9	65.6	80.6	62.7	69.0	2.5	3.8	3.4
	사무직	94.5	75.3	76.3	94.2	79.3	80.9	-0.3	4.0	4.6
	서비스직	54.9	12.8	26.8	64.5	22.6	32.9	9.6	9.8	6.1
	판매직	43.6	10.2	20.5	51.0	15.5	26.5	7.4	5.3	6.0
	농림어업숙련직	3.1	0.8	2.7	4.0	0.8	3.7	0.9	0.0	1.0
	기능직	70.5	25.8	36.9	72.2	33.9	43.6	1.7	8.1	6.7
	장치기계조작조립원	69.0	47.7	51.3	67.9	51.0	54.7	-1.1	3.3	3.4
	단순노무직	86.8	18.3	19.5	89.1	24.3	25.2	2.3	6.0	5.7

3. 고용조건

가. 고용안정(근속년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율은 2005년 8월 39.3%에서 2010년 8월 37.4%로 1.9%p 감소했고,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은 16.0%에서 17.6%로 1.6%p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근속년수 평균도 4.5년에서 5.0년으로 0.4년 증가했다. 직업별로 단기근속자 비율은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감소했고, 장기근속자 비율과 근속년수 평균값도 농림어업숙련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증가했다.

〈표 4-5〉 직업별 장단기 근속비율과 근속년수 평균값 증감 현황(2005-10년 8월) (단위: %, 년)

	2005년 8월			2010년 8월			증감		
	1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년)	1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년)	1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년)
전직업	39.3	16.0	4.5	37.4	17.6	5.0	-1.9	1.6	0.4
관리자	9.4	43.6	11.6	9.8	49.2	12.2	0.4	5.6	0.6
전문가	27.2	20.7	5.8	26.8	21.6	6.0	-0.4	0.9	0.2
사무직	24.9	25.7	6.5	24.2	26.2	6.9	-0.7	0.5	0.4
서비스직	57.1	9.2	2.8	50.2	11.1	3.3	-6.9	1.9	0.5
판매직	45.7	6.0	2.7	42.3	8.4	3.1	-3.4	2.4	0.4
농림어업 숙련직	72.9	10.2	2.7	67.2	7.5	2.2	-5.7	-2.7	-0.5
기능직	50.4	10.7	3.3	48.1	13.1	3.8	-2.3	2.4	0.4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8.5	19.9	5.3	27.7	22.6	6.1	-0.8	2.7	0.7
단순노무직	60.9	5.0	2.0	60.9	5.5	2.1	0.0	0.5	0.1

나.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2005년 8월 840만 명에서 2010년 8월 859만 명으로 19만 명 증가했다. 직업별로 단순노무직(38만 명)과 전문가(16만 명)는 증가하고, 기능직(-14만 명)과 사무직(-13만 명), 장치기계조작조립원(-10만 명)은 감소했다.

세부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273만 명에서 249만 명으로 23만 명 감소한데 비해, 시간제는 104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58만 명 증가했고, 간접고용(호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은 127만 명에서 169만 명으로 42만 명 증가했다. 기간제는 단순노무직(10만 명)과 전문가(3만 명)만 증가하고, 기능직(-19만 명)과 서비스직(-5만 명), 판매직(-5만 명) 등 다른 직업은 모두 감소했다. 시간제는 단순노무직(24만 명)과 전문가(11만 명), 서비스직(10만 명), 판매직(9만 명)에서 주로 증가했고, 간접고용은 단순노무직(24만 명)과 기능직(11만 명)에서 많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 8월 56.1%에서 2010년 8월 50.4%로 -5.7%p 감소했고, 농림어업숙련직(3.4%p) 이외의 모든 직업에서 감소했다. 기간제 비율은 18.2%에서 14.6%로 -3.6%p 감소했고, 모든 직업에서 감소했다.

시간제 비중은 7.0%에서 9.5%로 2.5%p 증가했고, 농림어업숙련직(-11.7%p)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0.1%p)을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증가했다. 특히 단순노무직(5.7%p)과 서비스직(5.6%p), 판매직(5.6%p)에서 시간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간접고용 비중은 8.5%에서 9.9%로 1.4%p 증가했다. 특히 기능직(6.7%p)과 단순노무직(4.1%p)에서 많이 증가했는데, 기능직은 호출근로(5.0%p), 용역근로(1.0%p), 파견근로(0.7%p) 순이고, 단순노무직은 용역근로(1.5%p), 파견근로(1.4%p), 호출근로(1.2%p) 순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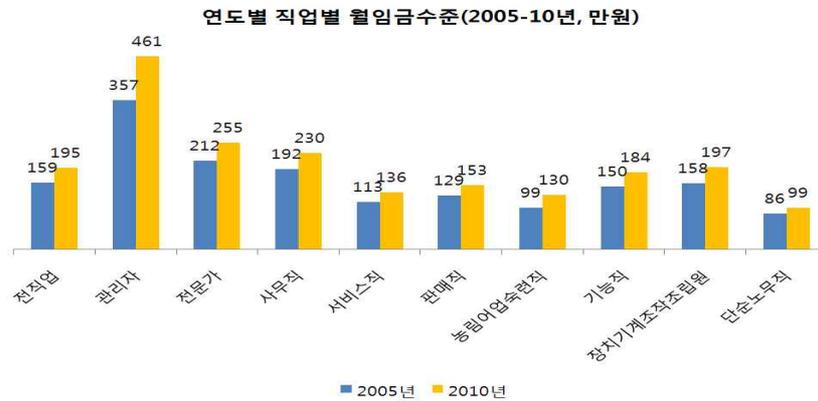
〈표 4-6〉 직업별 비정규직 증감 현황(2005-10년 8월) (단위: 천명, %)

		2005년 8월				2010년 8월				증감			
		비정 규직	기간 제	시간 제	간접 고용	비정 규직	기간 제	시간 제	간접 고용	비정 규직	기간 제	시간 제	간접 고용
수	전직업	8,404	2,727	1,044	1,267	8,593	2,494	1,621	1,687	189	-233	577	420
	관리자	47	34	1	2	56	32	3	6	9	-2	2	4
	전문가	1,049	502	182	25	1,211	532	296	40	162	30	114	15
	사무직	1,008	489	81	34	876	454	120	57	-132	-35	39	23
	서비스직	1,176	269	187	114	1,164	217	289	121	-12	-52	102	7
	판매직	1,104	171	110	73	1,121	123	202	76	17	-48	92	3
	농림어업 숙련직	48	21	11	14	57	14	5	17	9	-7	-6	3
	기능직	1,141	360	61	280	997	175	61	387	-144	-185	0	107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710	197	29	69	609	162	27	89	-101	-35	-2	20
	단순노무직	2,121	684	382	656	2,502	785	618	894	381	101	236	238
비 율	전직업	56.1	18.2	7.0	8.5	50.4	14.6	9.5	9.9	-5.7	-3.6	2.5	1.4
	관리자	16.4	11.8	0.3	0.6	14.5	8.2	0.8	1.5	-1.9	-3.6	0.5	0.9
	전문가	37.8	18.1	6.6	0.9	32.8	14.4	8.0	1.1	-5.0	-3.7	1.4	0.2
	사무직	31.8	15.4	2.6	1.0	24.7	12.8	3.4	1.6	-7.1	-2.6	0.8	0.6
	서비스직	82.3	18.8	13.1	8.0	75.2	14.0	18.7	7.8	-7.1	-4.8	5.6	-0.2
	판매직	81.6	12.6	8.1	5.4	76.0	8.3	13.7	5.1	-5.6	-4.3	5.6	-0.3
	농림어업 숙련직	81.4	35.6	18.6	23.7	84.8	21.5	6.9	25.5	3.4	-14.1	-11.7	1.8
	기능직	69.1	21.8	3.7	17.0	61.1	10.8	3.8	23.7	-8.0	-11.0	0.1	6.7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39.2	10.9	1.6	3.8	33.5	8.9	1.5	5.0	-5.7	-2.0	-0.1	1.2
	단순노무직	87.0	28.1	15.7	26.9	86.8	27.2	21.4	31.0	-0.2	-0.9	5.7	4.1

다. 임금수준

월평균임금은 2005년 8월 159만원에서 2010년 8월 195만원으로 5년 사이 36만원(22.6%) 증가했다.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관리자는 357만원에서 461만원으로 104만원(29.1%) 증가한데 비해,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단순노무직은 86만원에서 99만원으로 13만원(15.1%)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임금인상이 상후하박(上厚下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리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단순노무직 임금은 24.1에서 21.5로 확대되었다.

〈그림 4-6〉 연도별 직업별 월임금 수준(2005-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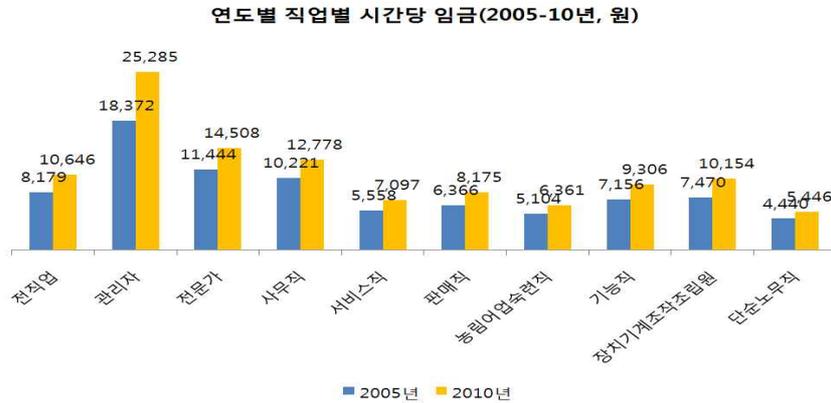


〈표 4-7〉 직업별 월평균 임금 증감 현황(2005-10년 8월) (단위: 만원, %)

	임금수준			증가율 (%)	임금격차(관리자=100)		
	2005년	2010년	증감		2005년	2010년	증감
전직업	159	195	36	22.6			
관리자	357	461	104	29.1	100.0	100.0	-
전문가	212	255	43	20.3	59.4	55.3	4.1
사무직	192	230	38	19.8	53.8	49.9	3.9
서비스직	113	136	23	20.4	31.7	29.5	2.2
판매직	129	153	24	18.6	36.1	33.2	2.9
농림어업 숙련직	99	130	31	31.3	27.7	28.2	-0.5
기능직	150	184	34	22.7	42.0	39.9	2.1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58	197	39	24.7	44.3	42.7	1.5
단순노무직	86	99	13	15.1	24.1	21.5	2.6

시간당 임금은 2005년 8월 8,179원에서 2010년 8월 1만 646원으로 5년 사이 2,467원(30.2%) 증가했다.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관리자는 1만 8,372원에서 2만 5,285원으로 6,913원(37.6%) 증가한데 비해,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단순노무직은 4,440원에서 5,446원으로 1,006원(22.7%) 증가했다. 관리자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전문가 임금은 62.3에서 57.4, 사무직 임금은 55.6에서 50.5, 단순노무직 임금은 24.2에서 21.5로 확대되었다.

<그림 4-7> 연도별 직업별 시간당임금(2005-10년)



<표 4-8> 직업별 시간당 임금 증감 현황(2005-10년 8월) (단위: 원, %)

	임금수준			증가율 (%)	임금격차(관리자=100)		
	2005년	2010년	증감		2005년	2010년	증감
전직업	8,179	10,646	2,467	30.2			
관리자	18,372	25,285	6,913	37.6	100.0	100.0	-
전문가	11,444	14,508	3,064	26.8	62.3	57.4	4.9
사무직	10,221	12,778	2,557	25.0	55.6	50.5	5.1
서비스직	5,558	7,097	1,539	27.7	30.3	28.1	2.2
판매직	6,366	8,175	1,809	28.4	34.7	32.3	2.3
농림어업 숙련직	5,104	6,361	1,257	24.6	27.8	25.2	2.6
기능직	7,156	9,306	2,150	30.0	39.0	36.8	2.1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7,470	10,154	2,684	35.9	40.7	40.2	0.5
단순노무직	4,440	5,446	1,006	22.7	24.2	21.5	2.6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임금불평등(P9010)은 월평균임금 기준으로 2005년 8월 5.00배에서 2010년 8월 5.14배로 높아지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5.40배에서 5.25배로 낮아졌다. 증감 방향은 다르지만 월평균임금과 시간당 임금 모두 5배가 넘는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 각 직업 내에서 임금불평등은 월평균임금 기준으로는 판매직과 관리자, 단순노무직 내에서 확대되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관리자와 장치기계조작조립원 내에서 확대되었다.

〈표 4-9〉 직업별 임금불평등 증감 현황(2005-10년 8월, p9010) (단위: 배)

	월평균임금			시간당 임금		
	2005년	2010년	증감	2005년	2010년	증감
전직업	5.00	5.14	0.14	5.40	5.25	-0.15
관리자	3.10	3.79	0.69	3.46	4.38	0.92
전문가	4.84	4.50	-0.34	4.74	4.50	-0.24
사무직	4.25	4.00	-0.25	4.38	3.91	-0.47
서비스직	5.01	5.30	0.29	4.40	4.17	-0.23
판매직	4.00	4.91	0.91	4.11	3.75	-0.36
농림어업 숙련직	9.41	5.85	-3.56	6.81	4.31	-2.50
기능직	3.57	3.00	-0.57	3.38	3.30	-0.08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3.13	3.00	-0.13	3.21	3.64	0.43
단순노무직	5.00	5.33	0.33	3.33	3.00	-0.33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2005년 8월 371만 명(24.8%)에서 2010년 8월 455만 명(26.7%)으로 5년 사이 85만 명(1.9%p)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398만 명(26.6%)에서 452만 명(26.5%)로 54만 명(-0.1%p) 증가했다. 단순노무직은 저임금계층(시간당 임금 기준)이 2005년 8월 146만 명(59.7%)에서 2010년 8월 182만 명(63.0%)으로 36만 명(3.3%p) 증가해, 3명 중 2명이 저임금계층에 속한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5년 8월 121만 명(8.1%)에서 2010년 8월에는 196만 명(11.5%)으로 75만 명(3.4%p) 증가했다. 직업별로 단순노무직은 57만 명(23.3%)에서 97만 명(33.8%)으로 41만 명(10.5%p) 증가했고,

서비스직은 25만 명(17.8%)에서 33만 명(21.5%)으로 8만 명(3.7%p) 증가했으며, 판매직은 14만 명(10.1%p)에서 22만 명(15.2%p)으로 9만 명(5.1%p) 증가했다. 이밖에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한 명도 없는 관리자를 제외하면 모든 직업에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증가했다.

〈표 4-10〉 직업별 저임금계층 증감 현황(2005-10년 8월) (단위: 천명, %)

		2005년 8월			2010년 8월			증감		
		저임 급(월)	저임 급(시)	최저 임금 미만	저임 급(월)	저임 급(시)	최저 임금 미만	저임 급(월)	저임 급(시)	최저 임금 미만
수	전직업	3,707	3,979	1,213	4,552	4,516	1,958	845	537	745
	관리자	3	3	1	3	4	0	0	1	-1
	전문가	310	248	53	486	326	98	176	78	45
	사무직	374	332	58	413	352	94	39	20	36
	서비스직	627	779	254	738	823	333	111	44	79
	판매직	429	473	136	537	547	224	108	74	88
	농림어업 숙련직	30	35	17	34	31	23	4	-4	6
	기능직	272	344	83	287	309	118	15	-35	35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22	310	44	226	308	95	4	-2	51
	단순노무직	1,440	1,455	567	1,828	1,816	973	388	361	406
비율	전직업	24.8	26.6	8.1	26.7	26.5	11.5	1.9	-0.1	3.4
	관리자	1.0	1.0	0.3	0.8	1.0	0.0	-0.2	0.0	-0.3
	전문가	11.2	8.9	1.9	13.2	8.8	2.7	2.0	-0.1	0.8
	사무직	11.8	10.5	1.8	11.6	9.9	2.6	-0.2	-0.6	0.8
	서비스직	43.9	54.5	17.8	47.7	53.2	21.5	3.8	-1.3	3.7
	판매직	31.7	35.0	10.1	36.4	37.1	15.2	4.7	2.1	5.1
	농림어업 숙련직	51.7	59.3	29.3	50.7	46.3	34.3	-1.0	-13.0	5.0
	기능직	16.5	20.8	5.0	17.6	19.0	7.2	1.1	-1.8	2.2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2.3	17.1	2.4	12.4	16.9	5.2	0.1	-0.2	2.8
	단순노무직	59.1	59.7	23.3	63.4	63.0	33.8	4.3	3.3	10.5

마. 노동시간

주당 노동시간은 2005년 8월 47.5시간에서 2010년 8월에는 43.4시간으로 4.1시간 감소했다. 주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는 7.2%에서 10.3%로 3.1%p 증가했고,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는 37.2%에서 23.3%로 13.9%p 감소했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는 27.6%에서 16.0%로 11.6%p 감소했다.

주당 노동시간은 모든 직업에서 감소했고, 주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는 농림어업숙련직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만 감소하고 다른 직업은 모두 증가했다.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와 주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근로는 모든 직업에서 감소했다.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근로 축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직업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표 4-11〉 직업별 노동시간 증감 현황(2005-10년 8월) (단위: 천명, %)

	2005년 8월			2010년 8월			증감					
	평균	36 시간 미만	48 시간 초과	52 시간 초과	평균	36 시간 미만	48 시간 초과	52 시간 초과	평균	36 시간 미만	48 시간 초과	52 시간 초과
전직업	47.5	7.2	37.2	27.6	43.4	10.3	23.3	16.0	-4.1	3.1	-13.9	-11.6
관리자	45.9	0.7	25.1	13.9	43.4	1.3	15.8	8.8	-2.5	0.6	-9.3	-5.1
전문가	44.8	6.8	25.4	16.0	41.3	8.9	13.3	6.6	-3.5	2.1	-12.1	-9.4
사무직	44.5	2.6	21.9	11.8	41.8	3.7	10.4	5.5	-2.7	1.1	-11.5	-6.3
서비스직	51.4	13.2	54.1	46.5	45.4	19.7	38.2	31.9	-6.0	6.5	-15.9	-14.6
판매직	48.6	8.2	46.2	35.9	43.8	14.6	28.5	19.7	-4.8	6.4	-17.7	-16.2
농림어업 숙련직	48.0	18.6	50.8	42.4	47.3	9.1	36.4	22.7	-0.7	-9.5	-14.4	-19.7
기능직	50.0	3.9	48.0	35.9	47.0	4.5	37.4	24.4	-3.0	0.6	-10.6	-11.5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51.0	1.9	46.9	38.1	46.8	1.8	30.4	22.9	-4.2	-0.1	-16.5	-15.2
단순노무직	47.5	16.0	41.9	33.2	42.6	22.9	29.5	22.4	-4.9	6.9	-12.4	-10.8

바. 사회보험 가입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2005년 8월 61.4%에서 2010년 8월에는 65.0%로 3.6%p 증가했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61.9%에서 67.0%로 5.1%p 증가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는 53.1%에서 58.6%로 5.5%p 증가했다.

직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가입한 사람은 52.1%에서 55.8%로 3.7%p 증가했다. 농림어업숙련직(-3.2%p)을 제외하면 모든 직업에서 가입률이 증가했는데, 서비스직(11.6%p)과 기능직(9.2%p), 판매직(5.6%p), 장치기계조작조립원(3.8%p)에서 많이 증가했다.

〈표 4-12〉 직업별 사회보험 가입률 증감 현황(2005-10년 8월) (단위: %)

	2005년 8월				2010년 8월				증감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모두 가입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모두 가입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모두 가입
전직업	61.4	61.9	53.1	52.1	65.0	67.0	58.6	55.8	3.6	5.1	5.5	3.7
관리자	92.4	94.9	77.8	77.1	90.7	95.7	82.5	78.4	-1.7	0.8	4.7	1.3
전문가	79.0	79.1	61.8	61.5	80.2	80.5	64.0	62.9	1.2	1.4	2.2	1.4
사무직	87.8	87.8	74.7	74.1	90.0	90.2	76.3	75.4	2.2	2.4	1.6	1.3
서비스직	29.5	29.4	19.7	19.0	42.0	42.5	32.3	30.6	12.5	13.1	12.6	11.6
판매직	35.0	34.2	32.8	31.7	38.4	38.6	38.6	37.3	3.4	4.4	5.8	5.6
농림어업 숙련직	29.4	30.2	25.8	25.9	23.7	27.1	36.5	22.7	-5.7	-3.1	10.7	-3.2
기능직	46.5	46.4	44.6	43.2	54.6	55.7	56.4	52.4	8.1	9.3	11.8	9.2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80.9	81.1	78.4	77.1	83.3	85.4	83.0	80.9	2.4	4.3	4.6	3.8
단순노무직	33.0	36.1	30.6	28.6	32.4	41.0	37.3	29.5	-0.6	4.9	6.7	0.9

사. 노동조건 적용

유급휴가 적용률은 2005년 8월 45.0%에서 2010년 8월에는 58.7%로 13.7%p 증가했고, 퇴직금 적용률은 54.1%에서 63.1%로 9.0%p 증가했으며, 상여금 적용률은 52.1%에서 64.7%로 12.6%p 증가했다. 직장에서 유급휴가, 퇴직금, 상여금 모두 적용받는 사람은 42.2%에서 53.5%로 11.3%p 증가했으며, 직업별로도 모든 직업에서 적용률이 증가했다.

〈표 4-13〉 직업별 노동조건 적용률 증감 현황(2005-10년 8월) (단위: %)

	2005년 8월				2010년 8월				증.감			
	유급 휴가	퇴직 금	상여 금	모두 적용	유급 휴가	퇴직 금	상여 금	모두 적용	유급 휴가	퇴직 금	상여 금	모두 적용
전직업	45.0	54.1	52.1	42.2	58.7	63.1	64.7	53.5	13.7	9.0	12.6	11.3
관리자	78.8	93.5	91.1	77.4	92.0	95.4	96.5	90.7	13.2	1.9	5.4	13.3
전문가	62.8	73.5	72.1	60.3	75.5	78.5	79.4	70.9	12.7	5.0	7.3	10.6
사무직	69.2	80.3	78.8	66.2	84.4	86.6	87.1	79.6	15.2	6.3	8.3	13.4
서비스직	21.5	24.4	22.1	17.9	36.0	39.2	43.0	29.2	14.5	14.8	20.9	11.3
판매직	19.0	24.6	23.6	15.6	31.7	35.2	41.7	26.2	12.7	10.6	18.1	10.6
농림어업 숙련직	16.8	22.8	23.8	15.5	22.1	25.8	30.3	16.4	5.3	3.0	6.5	0.9
기능직	29.4	38.0	36.9	27.7	44.8	51.0	54.9	40.3	15.4	13.0	18.0	12.6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59.9	73.0	71.0	57.3	70.9	80.6	80.5	66.9	11.0	7.6	9.5	9.6
단순노무직	17.9	24.5	20.2	14.5	28.1	33.7	33.7	21.1	10.2	9.2	13.5	6.6

아. 노조 가입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2005년 8월 348만 명(23.3%)에서 2010년 8월에는 421만 명(24.7%)로 72만 명(1.4%p) 증가했다. 하지만 노조가입 자격이 있는 사람은 250만 명(16.7%)에서 286만 명(16.8%)으로 36만 명(0.1%p) 증가에 그쳤고, 노조 조합원은 176만 명(11.8%)에서 195만 명(11.4%)으로 19만 명(-0.4%p) 증가에 그쳤다.

직업별 조합원수는 사무직(14만 명)과 전문가(8만 명), 서비스직(3만 명), 관리자(5천 명)는 증가하고, 장치기계조작조립원(-3만 명)과 기능직(-2만 명) 감소했다. 노조 가입률은 사무직(2.2%p)과 서비스직(1.5%p)만 증가하고 다른 직업은 모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 중 사무관리전문직은 2005년 8월 88만 명(50.2%)에서 2010년 8월에는 110만 명(56.7%)으로 12만 명(6.5%p) 증가했고, 판매서비스직은 10만 명(5.5%)에서 12만 명(6.1%)으로 2만 명(0.6%p) 증가했다. 하지만 생산직은 66만 명(37.8%)에서 61만 명(31.6%)으로 5만 명(-6.2%p) 감소했고, 단순노무직은 11만 1천 명(6.3%)에서 10만 8천 명(5.6%)으로 3천 명(-0.7%p) 감소했다. 노동조합 조합원에서도 블루칼라 생산직 비중은 감소하고 화이트칼라 사무관리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표 4-14〉 직업별 노조유무와 노조가입 증감 현황(2005-10년 8월)

(단위: 천명)

	2005년			2010년			증감		
	노조 있음	가입 자격	조합 원	노조 있음	가입 자격	조합 원	노조 있음	가입 자격	조합 원
전직업	3,481	2,497	1,760	4,205	2,863	1,945	724	366	185
관리자	110	45	18	114	34	23	4	-11	5
전문가	888	668	356	1,142	820	430	254	152	74
사무직	1,032	707	510	1,342	931	649	310	224	139
서비스직	89	51	33	186	89	59	97	38	26
판매직	175	84	64	153	88	60	-22	4	-4
농림어업 숙련직	5	4	2	5	3	2	0	-1	0
기능직	242	196	158	219	176	139	-23	-20	-19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679	595	508	641	574	475	-38	-21	-33
단순노무직	261	147	111	403	148	108	142	1	-3

〈표 4-15〉 직업별 노조유무와 노조가입 증감 현황(2005-10년 8월)

(단위: %)

	2005년			2010년			증감		
	유노 조율	유자 격율	가입 률	유노 조율	유자 격율	가입 률	유노 조율	유자 격율	가입 률
전직업	23.3	16.7	11.8	24.7	16.8	11.4	1.4	0.1	-0.4
관리자	38.2	15.7	6.3	29.5	8.8	5.9	-8.7	-6.9	-0.4
전문가	32.0	24.1	12.8	31.0	22.2	11.7	-1.0	-1.9	-1.1
사무직	32.6	22.3	16.1	37.8	26.2	18.3	5.2	3.9	2.2
서비스직	6.2	3.6	2.3	12.0	5.7	3.8	5.8	2.1	1.5
판매직	12.9	6.2	4.7	10.4	6.0	4.1	-2.5	-0.2	-0.6
농림어업 숙련직	8.5	6.9	3.4	7.6	4.5	3.0	-0.9	-2.4	-0.4
기능직	14.7	11.9	9.6	13.4	10.8	8.5	-1.3	-1.1	-1.1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37.5	32.9	28.1	35.2	31.6	26.1	-2.3	-1.3	-2.0
단순노무직	10.7	6.0	4.6	14.0	5.1	3.7	3.3	-0.9	-0.9

제 5 장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

1.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방식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산출하려면 어느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각 지표에 얼마만큼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여러 지표 가운데 고용의 양 지표는 직업별 구성비를 사용하고, 고용의 질 지표는 고용안정(근속년수), 비정규직, 임금수준, 저임금, 노동시간, 사회보험, 노동조건, 노사관계 8개 항목에 걸쳐 대표지표를 선정한 뒤 각 항목별로 동등한 가중치를 주고 산출했다.

〈표 5-1〉 항목별 지표와 가중치

항목	지표	대표지표	
1. 고용 양	취업자 구성비, 증감율 임금노동자비율, 공식고용(고용주+노동자)비율	취업자 구성비	
2. 고용 질	1) 고용안정	장기근속자(10년이상), 단기근속자 비율(1년미만), 직장유지율(장기-단기), 평균 근속년수	평균 근속년수
	2)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3) 임금수준	월평균임금(평균값, 중위값), 시간당임금(평균값, 중위값)	시간당임금(평균값)
	4) 저임금	임금불평등(P9010), 저임금근로자비율(중위임금2/3미만),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저임금근로자비율(시간당 임금 기준)
	5) 노동시간	장시간노동비율, 단시간노동비율, 평균노동시간	평균 노동시간
	6) 사회보험	직장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3개 모두 가입
	7) 노동조건	유급휴가, 퇴직금, 상여금	3개 모두 적용
	8) 노사관계	노조 조직률	노조 조직률

서로 성격과 단위가 다른 지표를 종합하려면 표준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똑같이 퍼센트로 계산한 자료라도 2010년 8월 직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최소 16.4% 최대 87.0%이고, 노조 조직률은 최소 2.3% 최대 28.1%다. 이를 단순합산하면 비정규직 비율은 높은 가중치를 주고 노조 조직률은 낮은 가중치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측정지표 표준화는 UNDP와 ILO 등이 사용하는 다음 방법을 사용한다.

-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지표:

$$\text{표준화한 } X = \frac{[\text{실제값} - \text{최소값}]}{[\text{최대값} - \text{최소값}]} \quad (0 \leq X \leq 1)$$

-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지표:

$$\text{표준화한 } X = \frac{[\text{최대값} - \text{실제값}]}{[\text{최대값} - \text{최소값}]} \quad (0 \leq X \leq 1)$$

이 글은 특정연도(2005년, 2010년)의 직업별 고용지표를 비교함과 동시에, 연도별 변화 추이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표준화 할 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2005년 자료를 사용하고, 시간당 임금은 200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임금 자료를 사용했다.

2. 고용의 양과 질 지표 산출 결과

<표 5-2>와 <표 5-3>은 앞서 선정한 대표지표의 직업별 실태를 요약한 것이고, <표 5-4>와 <표 5-5>는 이를 표준화한 결과다. 고용 양과 고용안정, 임금수준, 노동시간, 사회보험, 노동조건, 노조 조직률은 고용의 질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고, 비정규직과 저임금계층은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지표로 간주하고 표준화 했다. 고용의 질(종합)지표는 고용안정, 비정규직, 임금수준, 저임금, 노동시간, 사회보험, 노동조건, 노조 조직률 8개 지표에 동등한 가중치를 주고 산출했다. <표 5-6>과 <표 5-7>은 <표 5-4>와 <표 5-5>의 표준화 결과를 토대로 직업별 순위를 매긴 것이다.

〈표 5-2〉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2005년 8월)

	고용 양	고용 질							
		고용 안정	비정 규직	임금 수준	저 임금	노동 시간	사회 보험	노동 조건	조직 률
전직업	100.0	4.5	56.1	8,179	26.6	47.5	52.1	42.2	11.8
관리자	2.7	11.6	16.4	18,372	1.0	45.9	77.1	77.4	6.3
전문가	15.6	5.8	37.8	11,444	8.9	44.8	61.5	60.3	12.8
사무직	14.7	6.5	31.8	10,221	10.5	44.5	74.1	66.2	16.1
서비스직	11.4	2.8	82.3	5,558	54.5	51.4	19.0	17.9	2.3
판매직	13.6	2.7	81.6	6,366	35.0	48.6	31.7	15.6	4.7
농림어업 숙련직	8.1	2.7	81.4	5,104	59.3	48.0	25.9	15.5	3.4
기능직	10.3	3.3	69.1	7,156	20.8	50.0	43.2	27.7	9.6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1.5	5.3	39.2	7,470	17.1	51.0	77.1	57.3	28.1
단순노무직	12.3	2.0	87.0	4,440	59.7	47.5	28.6	14.5	4.6
최대값	15.6	11.6	87.0	18,372	59.7	51.4	77.1	77.4	28.1
최소값	2.7	2.0	16.4	4,440	1.0	44.5	19.0	14.5	2.3

〈표 5-3〉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2010년 8월)

	고용 양	고용 질							
		고용 안정	비정 규직	임금 수준	저 임금	노동 시간	사회 보험	노동 조건	조직 률
전직업	100.0	5.0	50.4	9,170	26.5	43.4	55.8	53.5	11.4
관리자	2.4	12.2	14.5	21,779	1.0	43.4	78.4	90.7	5.9
전문가	19.1	6.0	32.8	12,496	8.8	41.3	62.9	70.9	11.7
사무직	15.7	6.9	24.7	11,006	9.9	41.8	75.4	79.6	18.3
서비스직	10.0	3.3	75.2	6,113	53.2	45.4	30.6	29.2	3.8
판매직	12.0	3.1	76.0	7,041	37.1	43.8	37.3	26.2	4.1
농림어업 숙련직	6.8	2.2	84.8	5,479	46.3	47.3	22.7	16.4	3.0
기능직	9.4	3.8	61.1	8,016	19.0	47.0	52.4	40.3	8.5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1.2	6.1	33.5	8,746	16.9	46.8	80.9	66.9	26.1
단순노무직	13.5	2.1	86.8	4,691	63.0	42.6	29.5	21.1	3.7
최대값	19.1	12.2	86.8	21,779	63.0	47.3	80.9	90.7	26.1
최소값	2.4	2.1	14.5	4,691	1.0	41.3	22.7	16.4	3.0

〈표 5-4〉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표준화 결과(2005년 8월)

	고용 양	고용 질								
		고용 안정	비정 규직	임금 수준	저 임금	노동 시간	사회 보험	노동 조건	조직 률	종합
전직업		0.26	0.44	0.27	0.56	0.57	0.57	0.44	0.37	0.43
관리자	0.00	1.00	1.00	1.00	1.00	0.80	1.00	1.00	0.16	0.87
전문가	1.00	0.40	0.70	0.50	0.87	0.96	0.73	0.73	0.41	0.66
사무직	0.93	0.47	0.78	0.41	0.84	1.00	0.95	0.82	0.53	0.73
서비스직	0.67	0.08	0.07	0.08	0.09	0.00	0.00	0.05	0.00	0.05
판매직	0.84	0.07	0.08	0.14	0.42	0.41	0.22	0.02	0.09	0.18
농림어업 숙련직	0.42	0.07	0.08	0.05	0.01	0.49	0.12	0.02	0.04	0.11
기능직	0.59	0.14	0.25	0.19	0.66	0.20	0.42	0.21	0.28	0.29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0.68	0.34	0.68	0.22	0.73	0.06	1.00	0.68	1.00	0.59
단순노무직	0.74	0.00	0.00	0.00	0.00	0.57	0.16	0.00	0.09	0.10

〈표 5-5〉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표준화 결과(2010년 8월)

	고용 양	고용 질								
		고용 안정	비정 규직	임금 수준	저 임금	노동 시간	사회 보험	노동 조건	조직 률	종합
전직업		0.31	0.52	0.34	0.57	1.16	0.63	0.62	0.35	0.56
관리자	-0.02	1.06	1.03	1.24	1.00	1.16	1.02	1.21	0.14	0.98
전문가	1.27	0.42	0.77	0.58	0.87	1.46	0.75	0.90	0.36	0.76
사무직	1.01	0.51	0.88	0.47	0.85	1.39	0.97	1.04	0.62	0.84
서비스직	0.57	0.14	0.17	0.12	0.11	0.87	0.20	0.23	0.06	0.24
판매직	0.72	0.11	0.16	0.19	0.39	1.10	0.31	0.19	0.07	0.31
농림어업 숙련직	0.32	0.02	0.03	0.07	0.23	0.59	0.06	0.03	0.03	0.13
기능직	0.52	0.19	0.37	0.26	0.69	0.64	0.57	0.41	0.24	0.42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0.66	0.43	0.76	0.31	0.73	0.67	1.07	0.83	0.92	0.71
단순노무직	0.84	0.01	0.00	0.02	-0.06	1.28	0.18	0.10	0.05	0.20

〈표 5-6〉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순위(2005년 8월)

	고용 양	고용 질								종합
		고용 안정	비정 규직	임금 수준	저 임금	노동 시간	사회 보험	노동 조건	조직 률	
관리자	9	1	1	1	1	3	1	1	5	1
전문가	1	3	3	2	2	2	4	3	3	3
사무직	2	2	2	3	3	1	3	2	2	2
서비스직	6	6	8	7	7	9	9	6	9	9
판매직	3	7	6	6	6	6	6	7	6	6
농림어업 숙련직	8	8	6	8	8	5	8	7	8	7
기능직	7	5	5	5	5	7	5	5	4	5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5	4	4	4	4	8	1	4	1	4
단순노무직	4	9	9	9	9	4	7	9	6	8

〈표 5-7〉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대표지표 순위(201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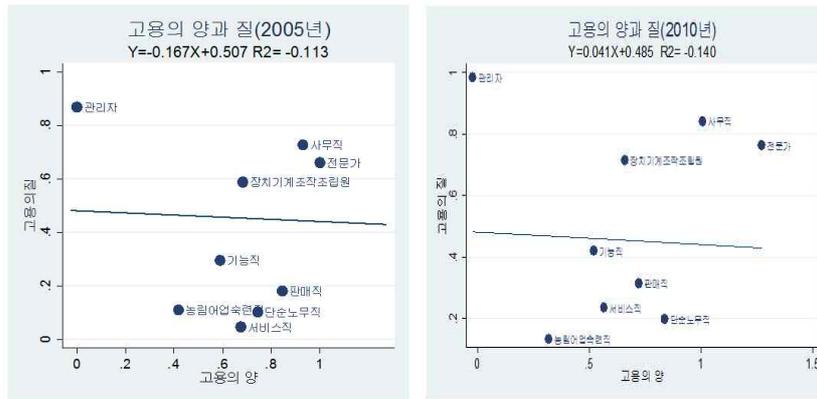
	고용 양	고용 질								종합
		고용 안정	비정 규직	임금 수준	저 임금	노동 시간	사회 보험	노동 조건	조직 률	
관리자	9	1	1	1	1	4	2	1	5	1
전문가	1	3	3	2	2	1	4	3	3	3
사무직	2	2	2	3	3	2	3	2	2	2
서비스직	6	6	6	7	8	6	7	6	7	7
판매직	4	7	7	6	6	5	6	7	6	6
농림어업 숙련직	8	8	8	8	7	9	9	9	9	9
기능직	7	5	5	5	5	8	5	5	4	5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5	4	4	4	4	7	1	4	1	4
단순노무직	3	9	9	9	9	3	8	8	8	8

제 6 장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1.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단순 회귀분석하면 계수 값이 -0.167(2005년)과 0.041(2010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고용의 양은 가장 낮으면서 고용의 질이 가장 높은 관리자를 제외하면 계수 값이 0.905(2005년)와 0.646(2010년)으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하지만 이때도 지난 5년간 고용의 양과 질 지표는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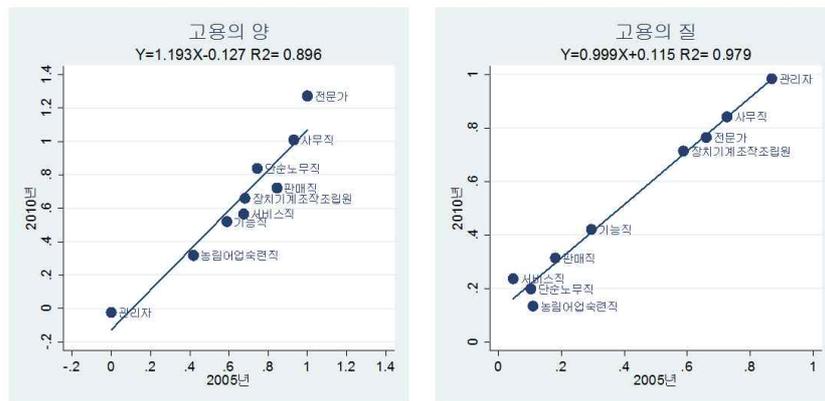
〈그림 6-1〉 고용의 양과 질(2005년, 2010년)



고용의 양 지표(취업자 구성비)는 2005년에는 전문가, 사무직, 판매직, 단순노무직, 장치기계조작조립원, 서비스직, 기능직, 농림어업숙련직, 관리자 순이고, 2010년에는 전문가, 사무직, 단순노무직, 판매직, 장치기계조작조립원, 서비스직, 기능직, 농림어업숙련직, 관리자 순이다. 지난 5년 사이 판매직과 단순노무직의 순위가 뒤바뀐 것을 제외하면 직업별 순위가 동일하다.

고용의 질 지표는 2005년에는 관리자, 사무직, 전문가, 장치기계조작조립원, 기능직, 판매직, 농림어업숙련직,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순이고, 2010년에는 관리자, 사무직, 전문가, 장치기계조작조립원, 기능직,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숙련직 순이다. 지난 5년 사이 서비스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숙련직의 순위가 뒤바뀐 것을 제외하면 직업별 순위가 동일하다.

<그림 6-2> 고용의 질 지표와 고용의 양 지표 회귀분석 결과



<표 6-1>은 고용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8개 대표지표와 고용의 양 지표 사이에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고용의 질 지표를 종속변수로 하고 고용의 양 지표를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다. 고용의 질 종합지표 뿐만 아니라 8개 대표지표 모두 고용의 양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6-1> 고용의 양과 질 회귀분석 결과 (2010년 8월)

종속변수 설명변수	고용의 양과 질 회귀분석 결과 (2010년 8월)								
	고용 질종합	평균 근속 년수	비정 규직 비율	임금 수준	저임 금계 층	노동 시간	사회 보험	노동 조건	노조 조직 률
고용의 양	0.041 (0.901)	-0.272 (0.418)	0.031 (0.940)	-0.323 (0.397)	0.002 (0.995)	0.499 (0.116)	0.058 (0.887)	0.048 (0.918)	0.285 (0.359)
상수	0.485 (0.078)	0.498 (0.072)	0.442 (0.178)	0.573 (0.068)	0.532 (0.099)	0.692 (0.012)	0.533 (0.113)	0.518 (0.163)	0.091 (0.684)
모형설명력	-0.410	-0.037	-0.142	-0.024	-0.143	0.217	-0.139	-0.141	-0.005

주: 괄호 안은 p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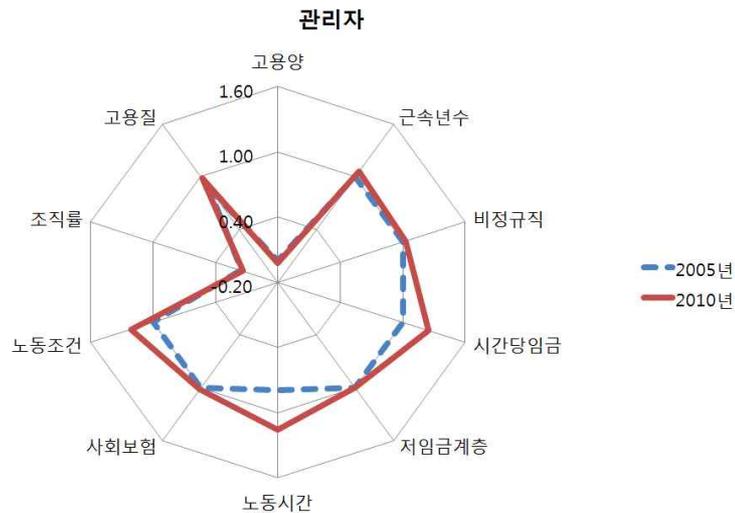
2.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가. 관리자

2005년에 관리자는 고용의 양 0.00(9위), 고용의 질 0.87(1위)로, 고용의 양은 꼴등이고 고용의 질은 1등이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0.80(3위), 노조 조직률 0.16(5위) 두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1.00(1위)로 가장 양질의 고용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2010년에는 고용의 양 -0.02(9위), 고용의 질 0.98(1위)로, 고용의 양은 후퇴하고 고용의 질은 개선되었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임금수준 1.24(1위), 노동조건 1.21(1위), 노동시간 1.16(4위), 고용안정 1.06(1위), 비정규직 1.03(1위), 사회보험 1.02(2위), 저임금 계층 1.00(1위)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개선된데 비해, 노조 조직률은 0.14(5위)로 후퇴했다.

<그림 6-3>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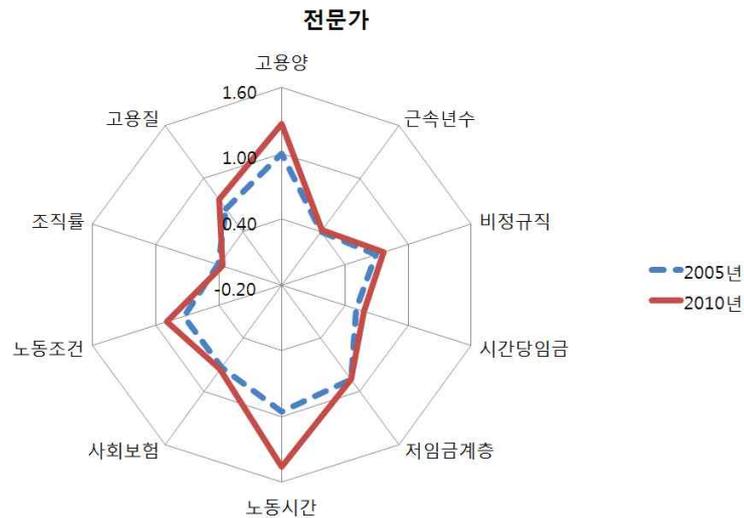


나. 전문가

2005년에 전문가는 고용의 양 1.00(1위), 고용의 질 0.66(3위)로, 고용의 양은 1등이고 고용의 질은 3등이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0.96(2위), 저임금 0.87(2위), 사회보험 0.73(4위), 노동조건 0.73(3위), 비정규직 0.70(3위), 임금수준 0.50(2위), 노조 조직률 0.41(3위), 고용안정 0.40(3위)로, 모든 항목에서 2~4위의 양질의 고용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임금수준이 2위여도 표준화 점수가 0.50로 낮은 것은, 관리자 임금(1만8,372원)을 100이라 할 때 전문가 임금(1만1,444원)은 62.3%로, 관리자와 임금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고용의 양 1.27(1위), 고용의 질 0.76(3위)로,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되었지만 2005년과 순위는 동일하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1.46(1위)으로 크게 개선되고, 노동조건 0.90(3위), 저임금 0.87(2위), 비정규직 0.77(3위), 사회보험 0.75(4위), 임금수준 0.58(2위), 고용안정 0.42(3위) 등 대부분의 항목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노조 조직률은 0.41(3위)에서 0.36(3위)으로 후퇴했다.

〈그림 6-4〉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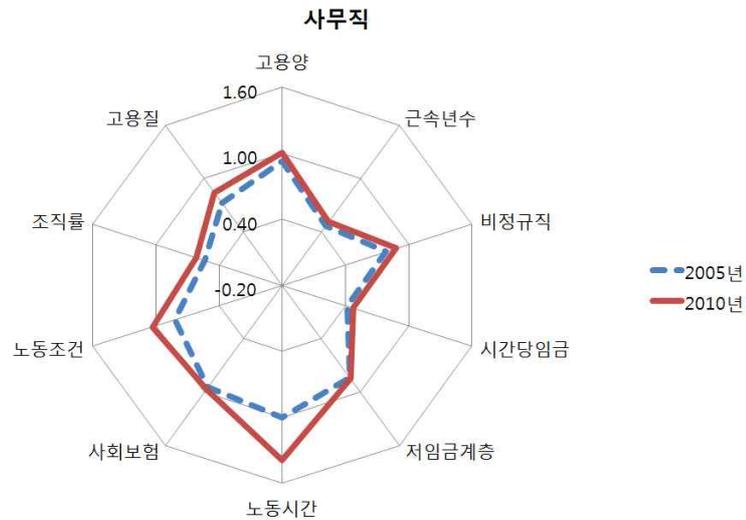


다. 사무직

2005년에 사무직은 고용의 양 0.93(2위), 고용의 질 0.73(2위)으로, 고용의 양과 질 모두 2등이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1.00(1위), 사회보험 0.95(3위), 저임금 0.84(3위), 노동조건 0.82(2위), 비정규직 0.78(2위), 노조 조직률 0.53(2위), 고용안정 0.47(2위), 임금수준 0.41(3위)로, 모든 항목에서 1~3위의 양질의 고용조건을 확보하고 있다.

2010년에는 고용의 양 1.01(2위), 고용의 질 0.84(2위)로, 고용의 양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은 개선되었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1.39(2위), 사회보험 0.97(3위), 저임금 0.85(3위), 노동조건 1.04(2위), 비정규직 0.88(2위), 노조 조직률 0.62(2위), 고용안정 0.51(2위), 임금수준 0.47(3위)로, 모든 항목이 개선되었다.

〈그림 6-5〉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사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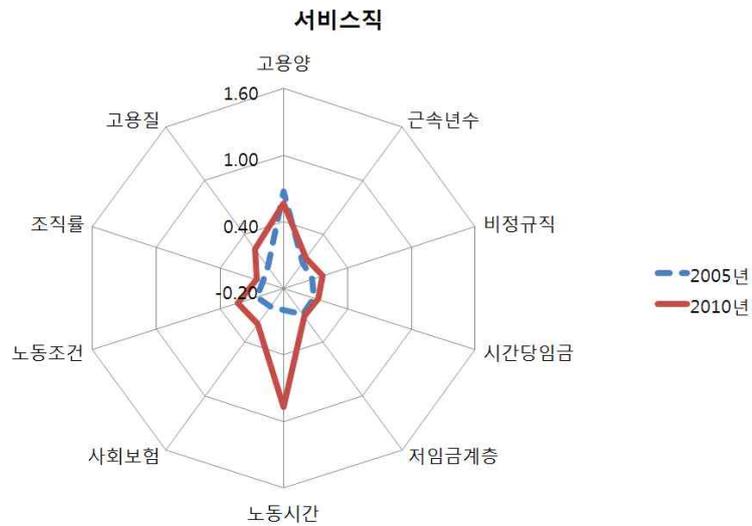


라. 서비스직

2005년에 서비스직은 고용의 양 0.67(6위), 고용의 질 0.05(9위)로, 고용의 양은 6위고 고용의 질은 꼴등이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사회보험, 노조 조직률은 0.00(9위)으로 최하위고 다른 항목도 0.05~0.09(6~8위)로 하위권이다.

2010년에는 고용의 양 0.57(6위), 고용의 질 0.24(7위)로, 고용의 양은 후퇴하고 고용의 질은 개선되었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0.87(6위)로 대폭 개선되었고, 다른 항목은 0.06~0.23(6~8위)으로 조금 개선되었다.

<그림 6-6>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서비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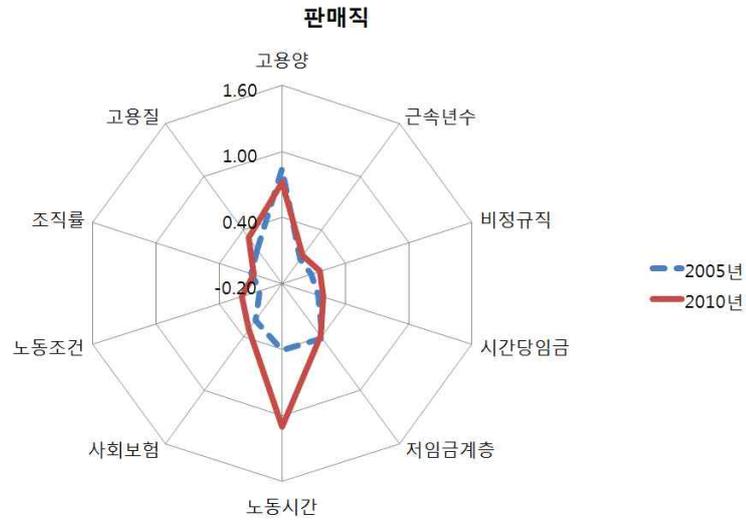


마. 판매직

2005년에 판매직은 고용의 양 0.84(3위), 고용의 질 0.18(6위)로, 고용의 양은 상위권이고 고용의 질은 중하위권이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이 0.02~0.42(6~7위)로 중하위권이다.

2010년에는 고용의 양 0.72(4위), 고용의 질 0.31(6위)로, 고용의 양은 후퇴하고 고용의 질은 개선되었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1.10(5위)로 대폭 개선되었고, 다른 항목은 0.07~0.39(6~7위)로 조금 개선되었다.

<그림 6-7>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판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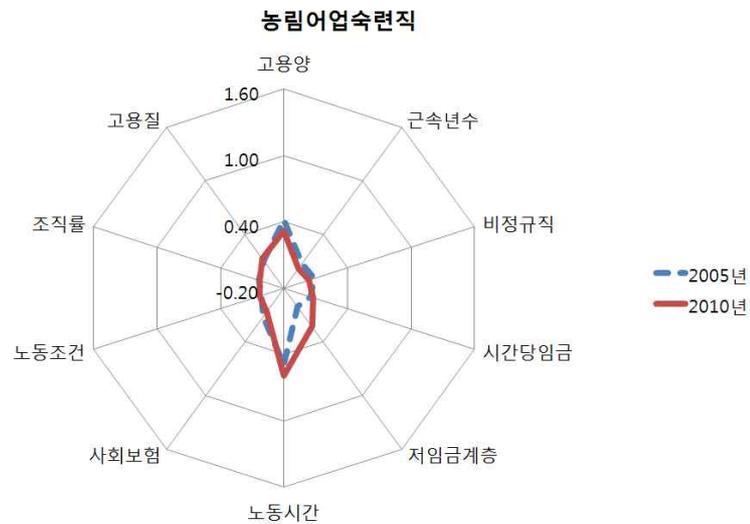


바. 농림어업숙련직

2005년에 서비스직은 고용의 양 0.42(8위), 고용의 질 0.11(7위)로, 고용의 양과 질 모두 하위권이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0.49(6위)를 제외하면 모두 0.02~0.12(6~8위)로 하위권이다.

2010년에는 고용의 양 0.32(8위), 고용의 질 0.13(9위)로, 고용의 양은 후퇴하고 고용의 질은 조금 개선되었지만 순위는 꼴등이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0.59(9위)를 제외하면 모두 0.02~0.23(7~9위)으로 고용안정, 비정규직, 사회보험, 노조 조직률은 오히려 후퇴했다.

〈그림 6-8〉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농업어업숙련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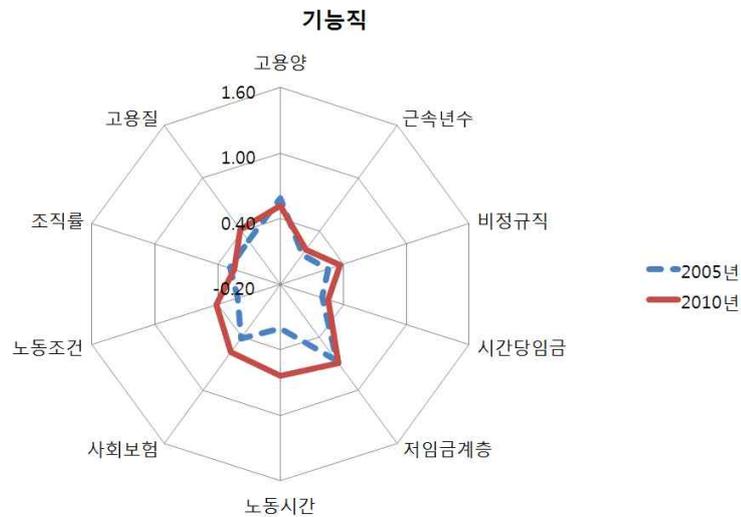


사. 기능직

2005년에 기능직은 고용의 양 0.59(7위), 고용의 질 0.29(5위)로, 고용의 양은 하위권이고 고용의 질은 중위권이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이 0.14-0.66(4-7위)로 중위권이다.

2010년에는 고용의 양 0.52(7위), 고용의 질 0.42(5위)로, 고용의 양은 후퇴하고 고용의 질은 개선되었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0.19-0.69(4-8위)로 노조 조직률은 조금 후퇴하고 다른 항목은 조금씩 개선되었다.

〈그림 6-9〉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기능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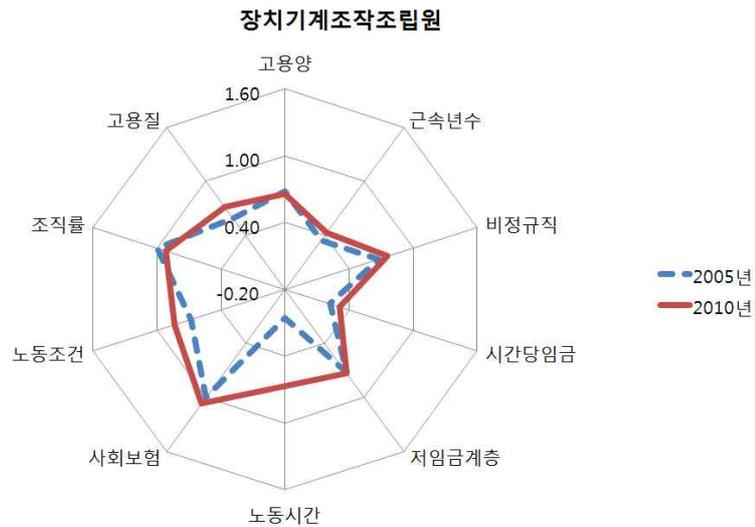


아. 장치기계조작조립원

2005년에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은 고용의 양 0.68(5위), 고용의 질 0.59(4위)로,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중위권이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조 조직률과 사회보험 가입률은 1.00(1위)로 최상위권이고 노동시간은 0.06(8위)으로 최하위권이다. 이밖에 다른 항목은 모두 0.22~0.73(4위)로 중상위권이다.

2010년에는 고용의 양 0.66(5위), 고용의 질 0.71(4위)로, 고용의 양은 거의 같은 수준이고 고용의 질은 조금 개선되었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조 조직률은 0.92(1위)로 조금 후퇴하고 노동시간은 0.67(7위)로 크게 개선되었다. 이밖에 다른 항목은 조금씩 개선되었다.

〈그림 6-10〉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장치기계조작조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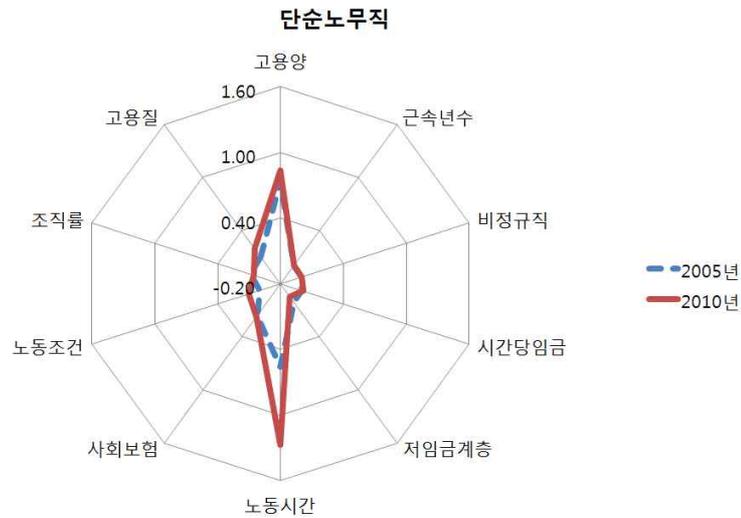


자. 단순노무직

2005년에 단순노무직은 고용의 양 0.74(4위), 고용의 질 0.10(8위)로, 고용의 양은 중위권이고 고용의 질은 최하위권이다.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 0.57(4위), 사회보험 0.16(7위), 노조 조직률 0.09(6위)를 제외하면 모두 0.00(9위)으로 최하위다.

2010년에는 고용의 양 0.84(3위), 고용의 질 0.20(8위)로, 고용의 양과 질이 조금 개선되었다. 하지만 고용의 질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1.28(3위)로 개선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항목은 -0.06~0.18(8~9위)로 2005년과 같거나 더 악화되었다.

<그림 6-11>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 비교: 단순노무직



제 7 장

맺는 말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별 고용의 양과 질 지표를 회귀분석하면 계수 값이 -0.167 (2005년)과 0.041 (2010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하지만 관리자를 제외하면 계수 값이 0.905 (2005년)와 0.646 (2010년)으로 10%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용의 양은 가장 작으면서 고용의 질은 가장 높은 관리자는 일종의 이상치(outlier)라 할 수 있다. 관리자를 제외하면 계수 값이 0.905 에서 0.646 으로 하락하는 것은 지난 5년 동안 고용의 양과 질의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지난 5년 동안 사무관리전문직은 752만 명(33.0%)에서 891만 명(37.2%)으로 139만 명(4.2%p) 증가했고, 단순노무직은 281만 명(12.3%)에서 323만 명(13.5%)으로 43만 명(1.2%p) 증가했다. 이에 비해 판매서비스직은 570만 명(25.0%)에서 529만 명(22.0%)으로 41만 명(-3.0%p) 감소하고, 농림어업숙련직은 185만 명(8.1%)에서 163만 명(6.8%)으로 21만 명(-1.3%p) 감소했으며, 생산직(기능직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은 497만 명(21.8%)에서 494만 명(20.6%)로 3만 명(-1.2%p) 감소했다. 고용의 질이 가장 높은 사무관리전문직과 가장 낮은 단순노무직은 고용의 양이 증가하고, 다른 직업은 모두 고용의 양이 감소했다. 즉 상위 직업과 하위 직업으로 양극화 하고 있다.

셋째, 2010년 8월 현재 고용의 질 지표는 관리자(0.98), 사무직(0.84), 전문가(0.76), 장치기계조작조립원(0.71), 기능직(0.42)과 판매직(0.31), 서

비스직(0.24), 단순노무직(0.20), 농림어업숙련직(0.13) 순이다. 장치기계 조작조립원과 기능직 사이에 분절이 매우 큰데, 이는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된 사무관리전문직과 장치기계조작조립원을 한 축으로 하고,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내부노동시장에서 배제된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기능직, 농림어업숙련직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노동시장 분절 내지 양극화가 크게 진전되었음을 말해준다.

넷째, 지난 5년 동안 고용의 질 지표(표준화 점수)는 0.43에서 0.56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의 질 개선은 대부분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실 노동시간 단축에서 비롯되었다(0.57→1.16). 노동시간 단축을 제외하면 고용의 질 지표가 0.42에서 0.48로 소폭 개선에 머물렀고, 단순노무직은 변함이 없다(0.04→0.04). 이에 비해 다른 직업은 0.05~0.09 개선되어 직업 간에 고용의 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표 7-1〉 고용의 질 지표(종합) 연도별 추이

	고용질(종합)			고용질(종합, 노동시간 제외)		
	2005년	2010년	증감	2005년	2010년	증감
전직업	0.43	0.56	0.13	0.42	0.48	0.06
관리자	0.87	0.98	0.11	0.88	0.96	0.08
전문가	0.66	0.76	0.10	0.62	0.66	0.05
사무직	0.73	0.84	0.11	0.69	0.76	0.08
서비스직	0.05	0.24	0.19	0.05	0.15	0.09
판매직	0.18	0.31	0.13	0.15	0.20	0.05
농림어업 숙련직	0.11	0.13	0.02	0.05	0.07	0.01
기능직	0.29	0.42	0.13	0.31	0.39	0.08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0.59	0.71	0.13	0.66	0.72	0.06
단순노무직	0.10	0.20	0.10	0.04	0.04	0.01

참고문헌

- 김유선(2010), 『KLSI 고용지표: OECD 국가 비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노용환·신종각(2007),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우리나라 ‘고용의 질’ 추이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명준(2009), “독일 노동조합 ‘양질의 일자리(gute Arbeit)’ 정책과 실천”, 금속노조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삶』.
- 박상현(2010), “OES를 활용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실증적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0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심포지엄』 자료집, pp.616~663.
- 방하남·이영면·김기현·김한준·이상호(2007), 『고용의 질-거시·기업·개인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조세형(2006), 『‘고용의 질’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윤효원(2009), “ILO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 정책연구”, 금속노조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삶』.
- 이병훈(2009), “경제위기와 비정규직의 노동권”, 『산업노동연구』 15(2): 1~21.
- 이병훈·이시균(2010), “취약노동자 집단의 실체에 관한 연구: 정규직·임시일용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87.
- 이영면·박상언(2007), “‘고용의 질’에 관한 글로벌 기준과 측정지표”, 『인사관리연구』 31(2): 149~177.
- 이영면·이동진(2010), “고용의 질이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제5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pp.197~216.
- 홍성우(2008), “광주 전남 노동시장 고용의 질 측정과 향상방안”, 『지역개발연구』 40(2),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Anker, Chernyshev, Egger, Mehran, and Ritter(2003), "Measuring decent work with statistical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2.

- Bescond, Chataignier and Mehran(2003), "Seven indicators to measure decent work: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2.
- Bonnet, Figueiredo and Standing(2003), "A family of decent work indexe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2.
- Ghai(2003), "Decent work: Concept and indicator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42:2.
- Leschke and Watt(2008), "Job quality in Europe", ETUI-REHS WP 2008.07
- Leschke, Watt, and Finn(2008), "Putting a number on job quality? Constructing a European Job Quality Index", ETUI-REHS WP 2008.03.

<부록> 직업별 고용실태(2005년 8월)

<부표 1> 직업별 남녀 분포(2005년 8월)

		수(천명)			남녀 구성비(%)			분포(%)		
		남자	여자	남녀	남자	여자	격차	남자	여자	남녀
취 업 자	전직업	13,330	9,515	22,845	58.3	41.7	16.7	100.0	100.0	100.0
	관리자	569	47	616	92.4	7.6	84.7	4.3	0.5	2.7
	전문가	2,005	1,548	3,553	56.4	43.6	12.9	15.0	16.3	15.6
	사무직	1,790	1,562	3,352	53.4	46.6	6.8	13.4	16.4	14.7
	서비스직	856	1,746	2,602	32.9	67.1	34.2	6.4	18.3	11.4
	판매직	1,512	1,590	3,102	48.7	51.3	2.5	11.3	16.7	13.6
	농림어업 숙련직	1,004	842	1,846	54.4	45.6	8.8	7.5	8.8	8.1
	기능직	1,982	361	2,343	84.6	15.4	69.2	14.9	3.8	10.3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265	358	2,623	86.4	13.6	72.7	17.0	3.8	11.5
	단순노무직	1,347	1,461	2,808	48.0	52.0	4.1	10.1	15.4	12.3
노 동 자	전직업	8,683	6,286	14,969	58.0	42.0	16.0	100.0	100.0	100.0
	관리자	274	13	287	95.5	4.5	90.9	3.2	0.2	1.9
	전문가	1,560	1,216	2,776	56.2	43.8	12.4	18.0	19.3	18.5
	사무직	1,742	1,424	3,166	55.0	45.0	10.0	20.1	22.7	21.2
	서비스직	436	993	1,429	30.5	69.5	39.0	5.0	15.8	9.5
	판매직	526	827	1,353	38.9	61.1	22.2	6.1	13.2	9.0
	농림어업 숙련직	36	23	59	61.0	39.0	22.0	0.4	0.4	0.4
	기능직	1,410	241	1,651	85.4	14.6	70.8	16.2	3.8	11.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495	316	1,811	82.6	17.4	65.1	17.2	5.0	12.1
	단순노무직	1,204	1,233	2,437	49.4	50.6	1.2	13.9	19.6	16.3

〈부표 2〉 직업별 혼인상태(2005년 8월)

		수(천명)				남녀 구성비(%)			
		미혼	유 배우	사별 이혼	전체	미혼	유 배우	사별 이혼	전체
취 업 자	전직업	5,129	15,919	1,801	22,849	22.4	69.7	7.9	100.0
	관리자	18	586	13	617	2.9	95.0	2.1	100.0
	전문가	1,256	2,208	89	3,553	35.4	62.1	2.5	100.0
	사무직	1,263	2,015	74	3,352	37.7	60.1	2.2	100.0
	서비스직	549	1,713	340	2,602	21.1	65.8	13.1	100.0
	판매직	615	2,248	240	3,103	19.8	72.4	7.7	100.0
	농림어업 숙련직	57	1,510	280	1,847	3.1	81.8	15.2	100.0
	기능직	409	1,769	166	2,344	17.4	75.5	7.1	100.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511	1,962	150	2,623	19.5	74.8	5.7	100.0
	단순노무직	451	1,908	449	2,808	16.1	67.9	16.0	100.0
노 동 자	전직업	4,528	9,363	1,078	14,969	30.2	62.5	7.2	100.0
	관리자	7	276	4	287	2.4	96.2	1.4	100.0
	전문가	1,082	1,642	52	2,776	39.0	59.1	1.9	100.0
	사무직	1,247	1,849	71	3,167	39.4	58.4	2.2	100.0
	서비스직	450	778	201	1,429	31.5	54.4	14.1	100.0
	판매직	482	786	85	1,353	35.6	58.1	6.3	100.0
	농림어업 숙련직	5	37	16	58	8.6	63.8	27.6	100.0
	기능직	370	1,154	127	1,651	22.4	69.9	7.7	100.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466	1,230	115	1,811	25.7	67.9	6.4	100.0
	단순노무직	419	1,611	407	2,437	17.2	66.1	16.7	100.0

<부표 3> 직업별 성별혼인(2005년 8월)

		수(천명)				비율(%)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취 업 자	전직업	2,765	10,568	2,365	7,151	12.1	46.3	10.4	31.3
	관리자	12	557	6	41	1.9	90.4	1.0	6.7
	전문가	494	1,511	761	786	13.9	42.5	21.4	22.1
	사무직	429	1,361	835	728	12.8	40.6	24.9	21.7
	서비스직	255	602	294	1,451	9.8	23.1	11.3	55.8
	판매직	318	1,194	297	1,293	10.3	38.5	9.6	41.7
	농림어업 숙련직	51	953	6	837	2.8	51.6	0.3	45.3
	기능직	395	1,588	14	347	16.9	67.7	0.6	14.8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436	1,830	76	283	16.6	69.7	2.9	10.8
	단순노무직	375	972	76	1,385	13.4	34.6	2.7	49.3
노 동 자	전직업	2,380	6,302	2,149	4,139	15.9	42.1	14.4	27.6
	관리자	4	269	3	11	1.4	93.7	1.0	3.8
	전문가	423	1,137	659	557	15.2	41.0	23.7	20.1
	사무직	422	1,320	825	599	13.3	41.7	26.1	18.9
	서비스직	207	229	243	750	14.5	16.0	17.0	52.5
	판매직	221	305	260	567	16.3	22.5	19.2	41.9
	농림어업 숙련직	5	31		23	8.5	52.5		39.0
	기능직	358	1,052	13	229	21.7	63.7	0.8	13.9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393	1,103	74	242	21.7	60.9	4.1	13.4
	단순노무직	347	856	72	1,161	14.2	35.1	3.0	47.7

〈부표 4〉 직업별 가구주관계(2005년 8월)

		수(천명)				비율(%)			
		가구 주	배우 자	기타 가구 원	전체	가구 주	배우 자	기타 가구 원	전체
취 업 자	전직업	13,533	4,997	4,315	22,845	59.2	21.9	18.9	100.0
	관리자	576	28	12	616	93.5	4.5	1.9	100.0
	전문가	1,939	620	994	3,553	54.6	17.5	28.0	100.0
	사무직	1,714	608	1,030	3,352	51.1	18.1	30.7	100.0
	서비스직	1,224	889	489	2,602	47.0	34.2	18.8	100.0
	판매직	1,646	930	526	3,102	53.1	30.0	17.0	100.0
	농림어업 숙련직	1,147	564	135	1,846	62.1	30.6	7.3	100.0
	기능직	1,786	267	290	2,343	76.2	11.4	12.4	100.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030	222	371	2,623	77.4	8.5	14.1	100.0
	단순노무직	1,471	869	468	2,808	52.4	30.9	16.7	100.0
노 동 자	전직업	8,494	2,808	3,668	14,970	56.7	18.8	24.5	100.0
	관리자	274	7	6	287	95.5	2.4	2.1	100.0
	전문가	1,500	433	843	2,776	54.0	15.6	30.4	100.0
	사무직	1,664	487	1,016	3,167	52.5	15.4	32.1	100.0
	서비스직	621	415	393	1,429	43.5	29.0	27.5	100.0
	판매직	550	401	402	1,353	40.7	29.6	29.7	100.0
	농림어업 숙련직	42	10	6	58	72.4	17.2	10.3	100.0
	기능직	1,223	174	255	1,652	74.0	10.5	15.4	100.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299	181	331	1,811	71.7	10.0	18.3	100.0
	단순노무직	1,321	700	416	2,437	54.2	28.7	17.1	100.0

<부표 5> 직업별 학력(2005년 8월)

		수(천명)					비율(%)					교육 년수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재학 휴학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졸	대졸 이상	재학 휴학	
취 업 자	전직업	5,665	8,927	2,263	5,118	875	24.8	39.1	9.9	22.4	3.8	12.0
	관리자	27	173	34	379	3	4.4	28.1	5.5	61.5	0.5	14.6
	전문가	41	466	614	2,271	161	1.2	13.1		63.9	4.5	15.1
	사무직	59	1,144	652	1,331	167	1.8	34.1		39.7	5.0	14.0
	서비스직	781	1,240	173	219	188	30.0	47.7	6.7	8.4	7.2	11.2
	판매직	608	1,589	291	498	116	19.6	51.2	9.4	16.1	3.7	12.0
	농림어업 숙련직	1,449	316	28	40	14	78.5	17.1	1.5	2.2	0.8	7.9
	기능직	658	1,320	189	148	28	28.1	56.3	8.1	6.3	1.2	11.3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631	1,632	187	120	54	24.0	62.2	7.1	4.6	2.1	11.4
	단순노무직	1,411	1,047	95	112	144	50.2	37.3	3.4	4.0	5.1	9.8
노 동 자	전직업	2,651	5,818	1,863	3,894	742	17.7	38.9	12.4	26.0	5.0	12.6
	관리자	6	62	13	206	1	2.1	21.5	4.5	71.5	0.3	15.2
	전문가	10	312	536	1,824	94	0.4	11.2	19.3	65.7	3.4	15.3
	사무직	44	1,033	635	1,292	162	1.4	32.6	20.1	40.8	5.1	14.0
	서비스직	377	663	109	107	173	26.4	46.4	7.6	7.5	12.1	11.3
	판매직	115	753	178	207	100	8.5	55.7	13.2	15.3	7.4	12.5
	농림어업 숙련직	38	14	3	1	1	66.7	24.6	5.3	1.8	1.8	8.7
	기능직	458	927	150	93	23	27.7	56.1	9.1	5.6	1.4	11.3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371	1,157	157	74	52	20.5	63.9	8.7	4.1	2.9	11.5
	단순노무직	1,232	897	82	90	136	50.6	36.8	3.4	3.7	5.6	9.8

〈부표 6〉 직업별 연령분포(2005년 8월)

		수(천명)					비율(%)					평균 연령
		25세 미만	25- 34세	35- 44세	45- 54세	55세 이상	25세 미만	25- 34세	35- 44세	45- 54세	55세 이상	
취 업 자	전직업	1,835	5,471	6,416	5,205	3,921	8.0	23.9	28.1	22.8	17.2	41.9
	관리자		31	220	236	129		5.0	35.7	38.3	20.9	47.3
	전문가	380	1,462	1,020	507	184	10.7	41.1	28.7	14.3	5.2	35.9
	사무직	454	1,349	1,001	446	103	13.5	40.2	29.9	13.3	3.1	34.8
	서비스직	308	443	774	753	324	11.8	17.0	29.7	28.9	12.5	41.0
	판매직	242	693	997	737	433	7.8	22.3	32.1	23.8	14.0	41.4
	농림어업 숙련직	12	44	176	369	1,246	0.6	2.4	9.5	20.0	67.5	59.4
	기능직	69	524	825	683	243	2.9	22.4	35.2	29.1	10.4	41.8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52	584	822	757	309	5.8	22.3	31.3	28.8	11.8	41.5
	단순노무직	218	341	581	717	950	7.8	12.1	20.7	25.5	33.8	47.3
노 동 자	전직업	1,686	4,615	4,255	2,869	1,542	11.3	30.8	28.4	19.2	10.3	38.4
	관리자		15	94	111	67		5.2	32.8	38.7	23.3	47.7
	전문가	315	1,279	744	341	96	11.4	46.1	26.8	12.3	3.5	34.6
	사무직	448	1,314	929	389	87	14.1	41.5	29.3	12.3	2.7	34.4
	서비스직	283	286	412	334	114	19.8	20.0	28.8	23.4	8.0	37.6
	판매직	217	448	438	193	57	16.0	33.1	32.4	14.3	4.2	35.3
	농림어업 숙련직		7	11	11	29		12.1	19.0	19.0	50.0	53.5
	기능직	67	455	541	441	146	4.1	27.6	32.8	26.7	8.8	40.4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47	507	591	430	136	8.1	28.0	32.6	23.7	7.5	39.0
	단순노무직	209	304	495	619	810	8.6	12.5	20.3	25.4	33.2	47.0

<부표 7> 직업별 산업분포(2005년 8월)

		수(천명)						비율(%)					
		제조업	기타재화생산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제조업	기타재화생산	생산자서비스	유통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취업자	전직업	4,068	3,911	2,655	5,491	3,703	3,020	17.8	17.1	11.6	24.0	16.2	13.2
	관리자	159	131	93	117	50	66	25.8	21.3	15.1	19.0	8.1	10.7
	전문가	388	154	632	444	210	1,724	10.9	4.3	17.8	12.5	5.9	48.5
	사무직	691	251	797	765	187	661	20.6	7.5	23.8	22.8	5.6	19.7
	서비스직	29	5	97	33	2,162	276	1.1	0.2	3.7	1.3	83.1	10.6
	판매직	96	17	303	2,601	80	6	3.1	0.5	9.8	83.8	2.6	0.2
	농림어업 숙련직	1	1,835	8		3	1	0.1	99.3	0.4		0.2	0.1
	기능직	863	923	87	132	315	23	36.8	39.4	3.7	5.6	13.4	1.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335	178	93	874	97	47	50.9	6.8	3.5	33.3	3.7	1.8
	단순노무직	506	417	545	525	599	216	18.0	14.9	19.4	18.7	21.3	7.7
노동자	전직업	3,433	1,606	2,235	3,053	2,004	2,642	22.9	10.7	14.9	20.4	13.4	17.6
	관리자	73	51	61	40	14	48	25.4	17.8	21.3	13.9	4.9	16.7
	전문가	360	129	404	347	151	1,386	13.0	4.6	14.5	12.5	5.4	49.9
	사무직	652	231	750	721	160	652	20.6	7.3	23.7	22.8	5.1	20.6
	서비스직	28	5	73	29	1,022	272	2.0	0.3	5.1	2.0	71.5	19.0
	판매직	63	8	235	989	52	6	4.7	0.6	17.4	73.1	3.8	0.4
	농림어업 숙련직	1	47	7		3	1	1.7	79.7	11.9		5.1	1.7
	기능직	605	657	85	114	168	23	36.6	39.8	5.1	6.9	10.2	1.4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165	78	87	400	37	45	64.3	4.3	4.8	22.1	2.0	2.5
	단순노무직	486	400	533	413	397	209	19.9	16.4	21.9	16.9	16.3	8.6

〈부표 8〉 직업별 종사자규모(2005년 8월)

		수(천명)						비율(%)					
		1-4 인	5-9 인	10-2 9인	30-9 9인	100- 299	300 인+	1-4 인	5-9 인	10-2 9인	30-9 9인	100 -299	300 인+
취 업 자	전직업	10,132	2,965	3,374	2,982	1,494	1,902	44.3	13.0	14.8	13.1	6.5	8.3
	관리자	95	162	173	109	35	42	15.4	26.3	28.1	17.7	5.7	6.8
	전문가	1,007	441	581	752	290	483	28.3	12.4	16.3	21.2	8.2	13.6
	사무직	362	461	754	695	438	643	10.8	13.7	22.5	20.7	13.1	19.2
	서비스직	1,669	416	238	137	68	74	64.1	16.0	9.1	5.3	2.6	2.8
	판매직	2,147	264	286	245	93	68	69.2	8.5	9.2	7.9	3.0	2.2
	농림어업 숙련직	1,792	31	15	6	2	1	97.0	1.7	0.8	0.3	0.1	0.1
	기능직	1,021	458	419	222	101	122	43.6	19.5	17.9	9.5	4.3	5.2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952	226	344	432	308	362	36.3	8.6	13.1	16.5	11.7	13.8
단순노무직	1,087	506	564	384	159	107	38.7	18.0	20.1	13.7	5.7	3.8	
노 동 자	전직업	2,972	2,483	3,187	2,942	1,486	1,899	19.9	16.6	21.3	19.7	9.9	12.7
	관리자	10	35	82	87	31	42	3.5	12.2	28.6	30.3	10.8	14.6
	전문가	309	386	563	748	287	482	11.1	13.9	20.3	27.0	10.3	17.4
	사무직	232	429	738	688	437	643	7.3	13.5	23.3	21.7	13.8	20.3
	서비스직	588	335	227	137	68	73	41.2	23.5	15.9	9.6	4.8	5.1
	판매직	485	196	271	241	93	67	35.8	14.5	20.0	17.8	6.9	5.0
	농림어업 숙련직	26	14	11	6	2	1	43.3	23.3	18.3	10.0	3.3	1.7
	기능직	414	394	400	220	101	122	25.1	23.9	24.2	13.3	6.1	7.4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71	202	337	431	308	362	9.4	11.2	18.6	23.8	17.0	20.0
단순노무직	737	492	558	384	159	107	30.2	20.2	22.9	15.8	6.5	4.4	

<부표 9>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2005년 8월) (단위: 천원, %)

		취업 자	임금 노동 자	상용	임시	일용	비임 금근 로자	고용 주	자영 자	무급 가족 종사	공식 고용
수 (천명)	전직업	22,844	14,967	7,926	4,878	2,163	7,877	1,700	4,601	1,576	9,626
	관리자	616	287	275	12		329	325	3	1	600
	전문가	3,553	2,776	2,091	668	17	777	239	507	31	2,330
	사무직	3,353	3,167	2,525	584	58	186	35	27	124	2,560
	서비스직	2,602	1,429	334	732	363	1,173	363	523	287	697
	판매직	3,102	1,353	317	884	152	1,749	318	1,074	357	635
	농림어업 숙련직	1,846	58	14	15	29	1,788	36	1,173	579	50
	기능직	2,343	1,651	605	517	529	692	259	370	63	864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622	1,810	1,251	479	80	812	93	682	37	1,344
	단순노무직	2,807	2,436	514	987	935	371	32	242	97	546
비율 (%)	전직업	100.0	65.5	34.7	21.4	9.5	34.5	7.4	20.1	6.9	42.1
	관리자	100.0	46.6	44.6	1.9		53.4	52.8	0.5	0.2	97.4
	전문가	100.0	78.1	58.9	18.8	0.5	21.9	6.7	14.3	0.9	65.6
	사무직	100.0	94.5	75.3	17.4	1.7	5.5	1.0	0.8	3.7	76.3
	서비스직	100.0	54.9	12.8	28.1	14.0	45.1	14.0	20.1	11.0	26.8
	판매직	100.0	43.6	10.2	28.5	4.9	56.4	10.3	34.6	11.5	20.5
	농림어업 숙련직	100.0	3.1	0.8	0.8	1.6	96.9	2.0	63.5	31.4	2.7
	기능직	100.0	70.5	25.8	22.1	22.6	29.5	11.1	15.8	2.7	36.9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00.0	69.0	47.7	18.3	3.1	31.0	3.5	26.0	1.4	51.3
	단순노무직	100.0	86.8	18.3	35.2	33.3	13.2	1.1	8.6	3.5	19.5

〈부표 10〉 직업별 근속년수 분포와 평균값 (2005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 년)

	근속년수 분포(%)						직장 유지 율 (%)	근속년수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평균 값	중앙 값
전직업	39.3	13.6	9.0	9.9	12.1	16.0	-23.3	4.52	1.67
관리자	9.4	8.0	7.3	13.6	18.1	43.6	34.1	11.63	7.42
전문가	27.2	14.9	10.0	12.1	15.1	20.7	-6.5	5.80	2.67
사무직	24.9	13.1	9.5	10.9	16.0	25.7	0.8	6.46	3.42
서비스직	57.1	13.8	7.0	6.6	6.2	9.2	-47.9	2.84	0.67
판매직	45.7	16.3	10.4	10.9	10.8	6.0	-39.7	2.68	1.17
농림어업 숙련직	72.9	5.1	5.1	1.7	5.1	10.2	-62.7	2.70	0.22
기능직	50.4	11.9	8.0	9.0	10.1	10.7	-39.8	3.34	0.92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8.5	14.2	9.8	11.8	15.7	19.9	-8.7	5.31	2.67
단순노무직	60.9	13.1	8.2	6.7	6.2	5.0	-55.9	1.98	0.50

<부표 11>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2005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천명, %)

		비정 규직	장기 임시 근로	한시 근로	기간 제 근로	시간 제 근로	호출 근로	특수 고용 형태	파견 근로	용역 근로	가내 근로	비 정형 근로
수	전직업	8,404	4,431	3,803	2,727	1,044	718	632	119	430	139	5,484
	관리자	47	6	39	34	1		3	1	1		43
	전문가	1,049	423	602	502	182	2	98	20	3	11	774
	사무직	1,008	401	581	489	81	7	40	14	13	3	682
	서비스직	1,176	670	497	269	187	72	35	11	31	3	627
	판매직	1,104	770	315	171	110	23	296	36	14	7	641
	농림어업 숙련직	48	22	26	21	11	12	2		2		41
	기능직	1,141	667	460	360	61	237	22	9	34	9	715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710	402	277	197	29	20	48	8	41	3	379
	단순노무직	2,121	1,070	1,006	684	382	345	88	20	291	103	1,582
비 율	전직업	56.1	29.6	25.4	18.2	7.0	4.8	4.2	0.8	2.9	0.9	36.6
	관리자	16.4	2.1	13.6	11.8	0.3		1.0	0.3	0.3		15.0
	전문가	37.8	15.2	21.7	18.1	6.6	0.1	3.5	0.7	0.1	0.4	27.9
	사무직	31.8	12.7	18.3	15.4	2.6	0.2	1.3	0.4	0.4	0.1	21.5
	서비스직	82.3	46.9	34.8	18.8	13.1	5.0	2.4	0.8	2.2	0.2	43.9
	판매직	81.6	56.9	23.3	12.6	8.1	1.7	21.9	2.7	1.0	0.5	47.4
	농림어업 숙련직	81.4	37.3	44.1	35.6	18.6	20.3	3.4		3.4		69.5
	기능직	69.1	40.4	27.9	21.8	3.7	14.4	1.3	0.5	2.1	0.5	43.3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39.2	22.2	15.3	10.9	1.6	1.1	2.7	0.4	2.3	0.2	20.9
	단순노무직	87.0	43.9	41.3	28.1	15.7	14.2	3.6	0.8	11.9	4.2	64.9

<부표 12> 직업별 월평균 임금과 분위별 분포 (2005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만원, 배)

	평균	분위별 월평균임금(만원)				배율(배)			
		10	30	50	70	90	p9010	p5010	p9050
전직업	159	60	100	130	190	300	5.00	2.17	2.31
관리자	357	170	250	320	450	526	3.10	1.88	1.65
전문가	212	80	136	200	250	387	4.84	2.50	1.94
사무직	192	80	128	180	233	340	4.25	2.25	1.89
서비스직	113	44	70	100	120	220	5.01	2.28	2.20
판매직	129	50	80	108	150	200	4.00	2.16	1.85
농림어업 숙련직	99	21	50	80	121	200	9.41	3.76	2.50
기능직	150	70	100	150	170	250	3.57	2.14	1.67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58	80	120	150	180	250	3.13	1.88	1.67
단순노무직	86	30	60	80	100	150	5.00	2.67	1.88

<부표 13> 직업별 시간당 임금과 분위별 분포 (2005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원, 배)

	평균	분위별 시간당 임금(원)				배율(배)			
		10	30	50	70	90	p9010	p5010	p9050
전직업	8,179	2,985	4,605	6,332	11,513	16,118	5.40	2.12	2.55
관리자	18,372	8,318	12,792	17,076	26,166	28,783	3.46	2.05	1.69
전문가	11,444	4,375	6,908	9,943	16,468	20,741	4.74	2.27	2.09
사무직	10,221	4,187	6,332	8,699	14,391	18,316	4.38	2.08	2.11
서비스직	5,558	2,399	3,289	4,030	6,579	10,542	4.40	1.68	2.62
판매직	6,366	2,798	3,838	5,102	8,635	11,513	4.11	1.82	2.26
농림어업 숙련직	5,104	1,606	2,858	3,838	7,675	10,931	6.81	2.39	2.85
기능직	7,156	3,411	4,797	6,396	9,420	11,513	3.38	1.88	1.8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7,470	3,742	5,117	6,396	9,594	12,020	3.21	1.71	1.88
단순노무직	4,440	2,159	3,070	3,838	5,757	7,196	3.33	1.78	1.88

<부표 14> 직업별 저임금계층과 최저임금 미달자 (2005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천명, %)

		월평균임금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최저 임금 미만
		저임금	중간 임금	고임금	저임금	중간 임금	고임금	
수	전직업	3,707	6,813	4,450	3,979	6,638	4,353	1,213
	관리자	3	33	252	3	40	244	1
	전문가	310	1,048	1,418	248	1,060	1,468	53
	사무직	374	1,371	1,422	332	1,387	1,448	58
	서비스직	627	599	203	779	479	171	254
	판매직	429	696	229	473	674	206	136
	농림어업 숙련직	30	21	7	35	16	8	17
	기능직	272	999	381	344	983	324	83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222	1,135	453	310	1,115	386	44
	단순노무직	1,440	911	85	1,455	884	98	567
비 율	전직업	24.8	45.5	29.7	26.6	44.3	29.1	8.1
	관리자	1.0	11.5	87.5	1.0	13.9	85.0	0.3
	전문가	11.2	37.8	51.1	8.9	38.2	52.9	1.9
	사무직	11.8	43.3	44.9	10.5	43.8	45.7	1.8
	서비스직	43.9	41.9	14.2	54.5	33.5	12.0	17.8
	판매직	31.7	51.4	16.9	35.0	49.8	15.2	10.1
	농림어업 숙련직	51.7	36.2	12.1	59.3	27.1	13.6	29.3
	기능직	16.5	60.5	23.1	20.8	59.5	19.6	5.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2.3	62.7	25.0	17.1	61.6	21.3	2.4
	단순노무직	59.1	37.4	3.5	59.7	36.3	4.0	23.3

주: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87만원 미만', 중간임금 계층은 '87만원 이상 195만원 미만', 고임금 계층은 '195만원 이상' 계층임. 시간당임금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4,221원미만', 중간임금 계층은 '4,221원 이상 9,498원 미만', 고임금 계층은 '9,498원 이상' 계층임.

<부표 15> 직업별 근로시간 평균값과 분포 (2005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시간, %)

	근로시간						근로시간 분포(%)					
	평균 값	중앙 값	-18 시간	18 -35	36 -39	40 시간	41 -44	45 -48	49 -52	52+ 시간	단 시간	장 시간
전직업	47.5	45.0	1.8	5.3	2.4	23.9	11.2	18.2	9.6	27.6	7.2	37.2
관리자	45.9	44.0	-	0.7	2.1	32.1	18.5	21.6	11.1	13.9	0.7	25.1
전문가	44.8	44.0	2.6	4.2	2.5	27.1	19.4	18.9	9.4	16.0	6.8	25.4
사무직	44.5	44.0	0.9	1.7	1.3	42.1	13.9	18.3	10.1	11.8	2.6	21.9
서비스직	51.4	50.0	2.0	11.2	3.7	14.5	4.8	9.8	7.6	46.5	13.2	54.1
판매직	48.6	48.0	1.6	6.6	3.9	19.2	6.0	16.5	10.3	35.9	8.2	46.2
농림어업 숙련직	48.0	48.6	1.7	16.9	3.4	15.3	3.4	8.5	8.5	42.4	18.6	50.8
기능직	50.0	48.0	0.5	3.4	2.1	15.6	7.1	23.2	12.1	35.9	3.9	48.0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51.0	48.0	0.4	1.5	0.6	18.0	10.6	22.0	8.8	38.1	1.9	46.9
단순노무직	47.5	48.0	4.4	11.6	3.9	13.9	7.7	16.5	8.8	33.2	16.0	41.9

<부표 16> 직업별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2005년 8월) (단위: %)

	직장 가입률			노동조건 적용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유급휴가	퇴직금	상여금
전직업	61.4	61.9	53.1	45.0	54.1	52.1
관리자	92.4	94.9	77.8	78.8	93.5	91.1
전문가	79.0	79.1	61.8	62.8	73.5	72.1
사무직	87.8	87.8	74.7	69.2	80.3	78.8
서비스직	29.5	29.4	19.7	21.5	24.4	22.1
판매직	35.0	34.2	32.8	19.0	24.6	23.6
농림어업 숙련직	29.4	30.2	25.8	16.8	22.8	23.8
기능직	46.5	46.4	44.6	29.4	38.0	36.9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80.9	81.1	78.4	59.9	73.0	71.0
단순노무직	33.0	36.1	30.6	17.9	24.5	20.2

<부표 17> 직업별 노조유무와 가입현황(2005년 8월, 임금노동자)

(단위: 천명, %)

	수(천명)				비율(%)				
	노조 없음	노조 있음	가입 자격	노조 가입	유노 조율	유자 격율	노조 가입률	자격 /노조	가입 /자격
전직업	11,490	3,481	2,497	1,760	23.3	16.7	11.8	71.7	70.5
관리자	178	110	45	18	38.2	15.7	6.3	40.9	40.0
전문가	1,888	888	668	356	32.0	24.1	12.8	75.2	53.3
사무직	2,135	1,032	707	510	32.6	22.3	16.1	68.5	72.1
서비스직	1,340	89	51	33	6.2	3.6	2.3	57.3	64.7
판매직	1,179	175	84	64	12.9	6.2	4.7	48.0	76.2
농림어업 숙련직	54	5	4	2	8.5	6.9	3.4	80.0	50.0
기능직	1,409	242	196	158	14.7	11.9	9.6	81.0	80.6
장치기계 조작조립원	1,132	679	595	508	37.5	32.9	28.1	87.6	85.4
단순노무직	2,175	261	147	111	10.7	6.0	4.6	56.3	75.5